

새종

2017년 문집 제31호



류인선, 오래된 풍경, 105×82cm, 한지에 붓담과 먹과 채색, 201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계훈 작곡

1. 대 - 한 의 의 련 이 들 이 - 곳 에 모 의 들 어 우 -
2. 너 - 와 나 한 울 잡 보 하 - 늘 유 지 고 이 어 한 -

리 부 진 - 곡 노 의 문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보 오 -
사 용 모 - 치 유 열 암 차 게 진 리 향 기 유 내 보 오 -

우 고 산 미 소 산 - 곡 가 람 스 진 세 - 중 의 일 빛
우 고 산 미 소 산 - 곡 가 람 스 진 세 - 중 의 일 빛

너 리 세 향 우 보 빛 - 내 리 세 향 우 보
너 리 세 향 우 보 빛 - 내 리 세 향 우 보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 1. 친구클럽:** 세종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친구클럽은 입양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주에 한번씩 도서관에서 만나, Korean-American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국어,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한 달에 한번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즐거운시간을 가지면서 평생 친구로서 서로에 대해 의지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프로그램은 세종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미 있는 클럽이다.
- 2. 모금파티:** 1978년 4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 모든 후원회비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마다모금 파티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 3.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인학교 협의회와 전미한인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힘쓰고 있다.
- 4.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5.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태극 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6.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 7.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 8. 종,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 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종학교 교사들



교장 김선미



토끼반 박진희



나비반 최희재



개나리반 박현우



매화반 한수경



난초반 한은영



무궁화반 노정환



장미반 윤희란



해반 유윤정



숲반 김계현



달반 이순영



별반 박지영



하늘반 최수나



신입반 엄선규



새동반 조수원



종달새반 이재선



재무 양승렬



음악 서희선



음악 윤영아



무용 신슬기



무용 미숙 Drews



사물놀이
Torey Powers



태권도
Dave Krause



태권도
Michael Hicks



태권도
Connor Cheney



태권도 이상현

인사말	7
투끼반	14
나비반	22
개나리반	30
매화반	38
난초반	43
무궁화반	48
장미반	53
해 반	57
슬 반	63
달 반	67
별 반	72
하늘반	78
신입반	86
색동반	90
종달새반	93
음악	96
무용	98
사물놀이	100
태권도	101
세종학생들의 특별활동	102
세종행사들	104

발행인: 김선미

편집인: 한수경, 한은영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사랑스러운 친구들~

입학을 축하해요~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아도 자그마한 꽃송이가 꽃망을 터트리러는 것 처럼



교장 김선미

해마다 2월의 미시간은 이번에는 얼마나 추울까 미리 걱정부터 하게하는 가장 혹독한 겨울을 우리에게 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별로 춥지않은 겨울을 보내면서도 2월은 그래도 한겨울을 우리에게 줄 것 같아 두려움 가득 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날을 당겨 맞이하는지 따뜻한 햇볕이 차가운 바람을 상쾌하게 느낄 정도로 만들어 그렇게 2월의 겨울은 그 위용을 잃고 있는 듯 합니다.

엄마 아빠 손에 한 손을 꼭 내어주고, 농칠세라 매달려 얼굴을 빠끔히 내밀고 두 눈을 크게 떠 살펴보던 아이들이 세종학교에서 함께 커가는 모습이 마냥 신기하고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 세종학교 학생들은 세종학교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세종학교는 애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며 바쁜 학교 생활에 정신 없을 때 살머시 다가와 손을 잡아끌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또 아는 척 해달라는 예쁜 세종학교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그들의 정겨움이 또 그들의 사랑스러움이 듬뿍 담아있는 작품들입니다.
자주 봐주시고 자주 아껴주세요.

보실 때 마다 아껴주시실 때 마다 조금씩 더 자라나는 세종학교 아이들입니다.
올해는 아이들의 마음 만큼이나 포근한 그림으로 우리의 정서를 보듬어 주는 류인선 화백님께서 작품을 표지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같아 더욱 정겹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세종학교 학생들을 키워주시는 학부모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다뒀 학생들을 위해 해줄 것을 찾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하게 자라주는 우리 세종학교 학생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의 끝자락날에

2017년 세종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이사장 김창희

별써 2016-2017년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문집 발행 소식에 마냥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러 합니다. 지난 9월에 시작한 세종학교는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이 제계도 전해져와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동요부르기 대회와 글짓기 대회등의 숨씨를 마냥 뿜낼 수 있는 행사와 추석과 설날등의 명절을 통해 하는 행사 소식에 세종학교 학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한 학년도를 결산하는 문집을 내는 작품들로 바쁜 학생들 소식에 많은 격려와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훌륭한 학생들을 세종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과 밤낮 없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미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세종학교의 학생들로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되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지 작가: 류인선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동양화과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개인전 [오래된 풍경], [풀과 꽃들의 말을 듣다], [풀과 꽃으로 전하는 마음(ACAF2015)] 외에도 3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가족 여러분,



시카고 한국교육원
원장 하유경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가족 여러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2017년호 문집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한글학교에는 어김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소중한 추억들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문집 세종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학교의 한 해를 담은 숨쉬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한인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맘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미중서부 13개 주에는 약 120여 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학교는 올해 햇수로 45년을 맞이한 명실상부한 만형과 같은 한글학교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탄탄한 교육과정과 활발한 특별활동으로 타 학교의 모범이 되어온 세종학교는 지난해에도 세종장터와 같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들지 않는 청년정신으로 더욱 성장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다른 학교들과도 협력하고 공유함으로써 중서부 지역의 한글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존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한국어의 현지사회 보급을 추진하고 재외국민과 동포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방문, 교사연수회, 현지학교 한국어채택사업, 한국어 강좌 등을 추진하면서 미중서부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당히 역할 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는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전형적인 미국 마을 한 가운데서 마주치는 반가운 한글학교 사인을 보면 아직도 몽클하는 감동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해안, 정성, 노력으로 이어져나가는 미주지역 한글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문집을 보면서 주말마다 의례히 이루어지는 액티비티의 하나가 아닌, 나를 발견하고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으로서 한글학교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학부모님들의 한글학교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부탁 드리며, 많은 분들의 애정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문집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 원장 하유경

2017. 1

세종문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 차진영

여러분의 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문집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미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글로써 또 작품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뽐낸 학생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각자의 작품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한데 모여 훌륭한 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 만드신 문집은 단순히 글과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매년 여러분이 발간하는 문집을 대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세종학교는 미국 내에서 한글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익히는 요람으로 그 역사와 전통이 다른 어느 지역의 한글학교 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종학교가 있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한류의 열풍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세계인들이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인 친구 중에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너무 재미있으며 열렬한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한글도 배우고 한국의 역사도 배우는 등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 못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저 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종학교 학생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자랑스런 한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임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예술 또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좁은 서툰더라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당당히 세계 속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인류평화를 위한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는 여러분을 위한 후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문집 발간을 축하하며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장 차진영

사랑하는 세종학교 여러분,



미시간 한국 지명사협회
회장 양재하

세종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온지 1년이 채 안된 새내기로서 45년 역사를 가진 세종학교 문집 발간에 격려사 부탁을 받고 난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11년째 거주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로서 느낀 생각들을 가지고 세종학교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종학교 하면 당연히 세종대왕이 먼저 떠오릅니다.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대를 이끈 임금님이시니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달리 설명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분은 창조정신이 뛰어나셨으며, 특히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유의 글, 가장 과학적이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한글을 창제하셔서 우리 후세에게 너무나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종학교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글,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살아갈 후세들이 한국의 전통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으로 미국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창조는 융합에서 나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해 온 청교도들로부터 이어져온 이민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이민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시대를 선도하는 많은 창조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가 오늘의 강대국 미국을 이루어 온 것이죠. 오늘날에도 Google의 세르게이 브린, Tesla의 엘론 머스크 등 새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적 기업의 창업자들이 이민자들이라는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2세대, 3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더욱 유지, 보존해나가야 할 것이 우리 한글과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세종학교의 지난 45년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세종학교를 이끌어오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과 잘 배우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발간되고 있는 문집이 올 해도 더욱 알차고 재미 있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시간 한국 지명사협회 회장 양재하 드림

세종학교를 응원합니다!



학부모회장 신은주

미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지만 한국문화를 잊지 않고, 또래의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세종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봉사하시는 어머님들 사이에 끼어 일손도 돕고 살아가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등을 들으며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토요일에 세종학교에 오는 것이 중요한 일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 학기를 시작하며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회장님의 사정으로 열결에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회장직을 맡던 날 있었던 동요대회에서는 저도 같이 긴장한 채로 난생처음 심사도 해 보았고 학부모회의 주요활동인 스낵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학년 대표 어머니들께 일정을 공지하고 메뉴선정과 세부 사항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같은 스낵시간에는 어머님들이 학년별로 봉사를 나오시는데 어린아이일수록 봉사하러 나온 엄마가 그리 좋은지 스낵 받으러 오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잠깐이라도 엄마 품에 안기었다가 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봉사 나온 엄마는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며 또 안심하고 뿌듯해하십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깐요. 저도 잘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수고로움을 잠시 잊고 흐뭇한 얼굴을 하게 된답니다.

지금은 2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의 학교 행사도 많고 작년처럼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함께 됩니다. 물론 세종학교 원로라 칭하시는 어머님들과 같이 매번 애써주시는 총무님, 스낵시간에 음료를 담당하시며 도와주시는 학부모님 등 세종학교 활동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분들 모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처음이라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주위 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원만하게 학교행사들이 진행되도록 세종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회장 신은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반

교사 박진희

토끼반 친구들과 처음 인사하던 날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년이 채워지고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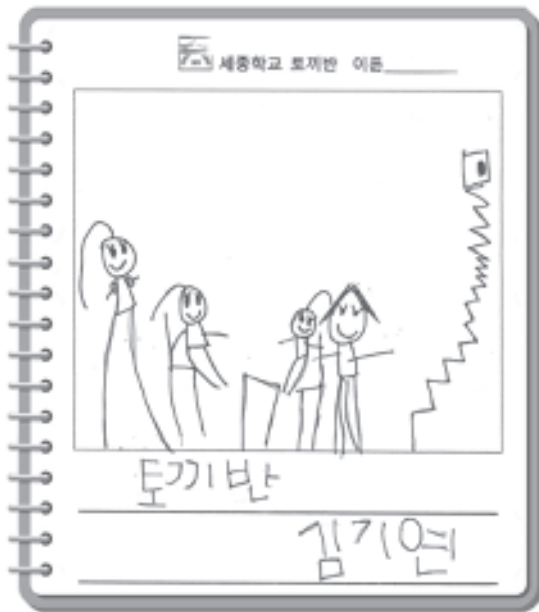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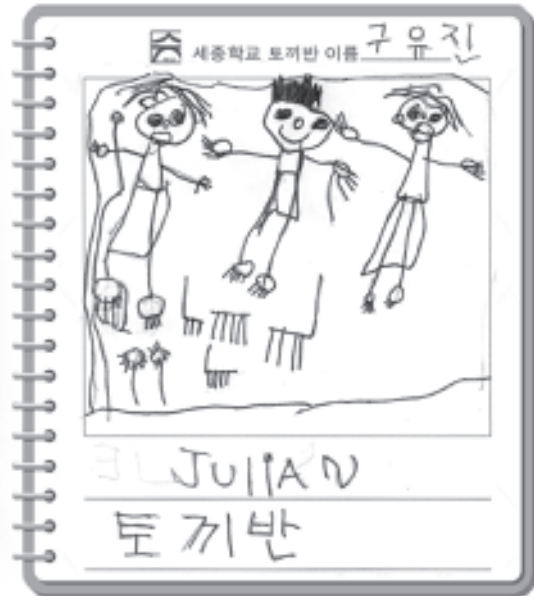
수업이 있는 토요일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막 나온 듯한 빠친 머리와 해맑은 미소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매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가르친다는 마음보다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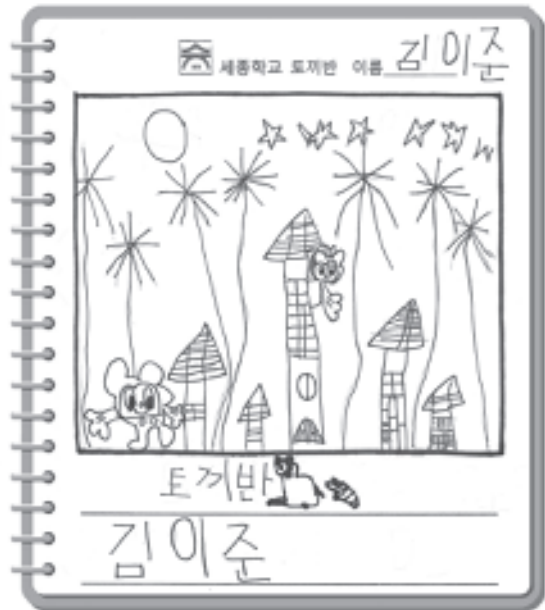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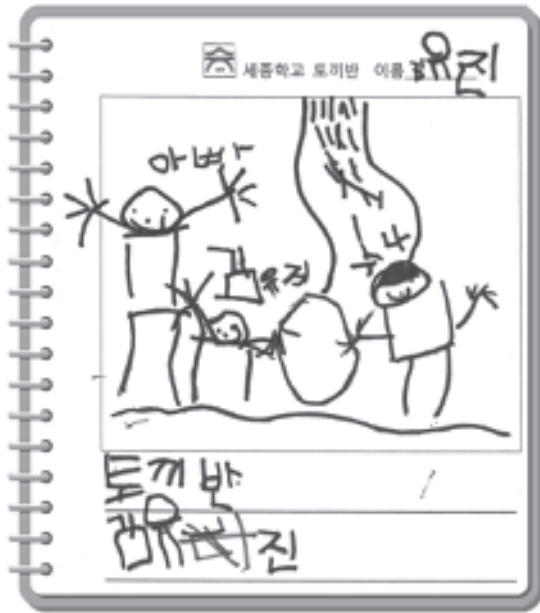
일주일에 하루.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손과 입을 모아 즐겁게 한글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느덧 연필잡기도 힘들어하던 고사리손들이 자신의 이름도 제법 쓸 줄 알고, 낯익은 낱말들을 보면 서로 질세라 큰 소리로 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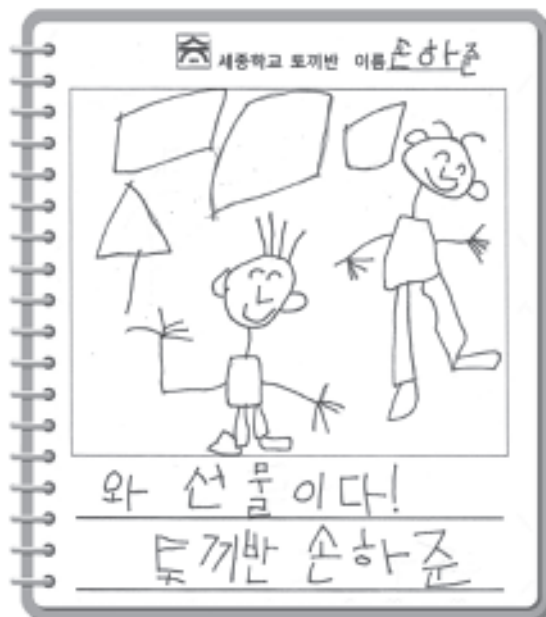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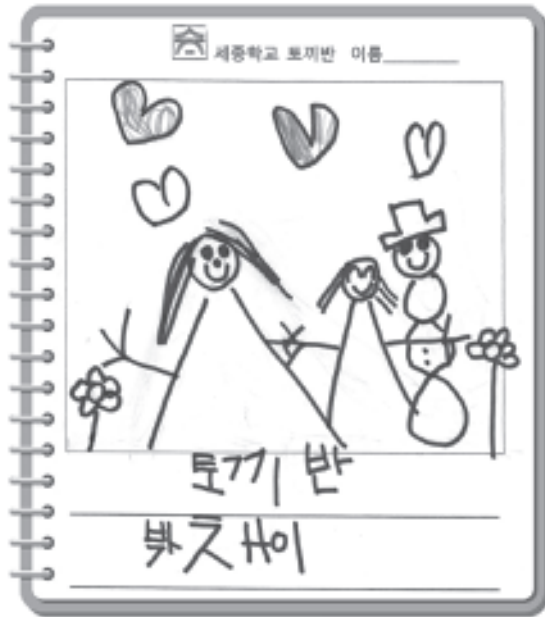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던 친구들도, 집에 두고 온 장난감을 걱정하던 친구들도, 배고프다며 먹을 걸 찾던 친구들도 지난 일 년간 모두 훌쩍 자라서 이제는 의젓하게 수업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토끼반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한 만큼 저에게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한 글자라도 즐겁게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에 제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 토끼반 친구들의 사랑스런 얼굴들이 담겨있어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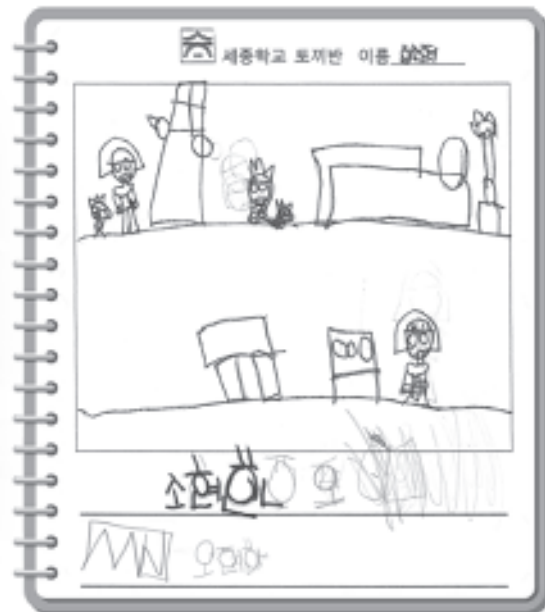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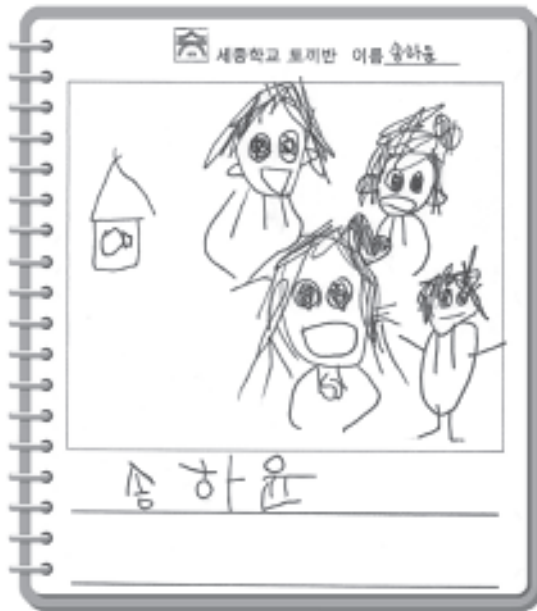
아울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격려가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토끼반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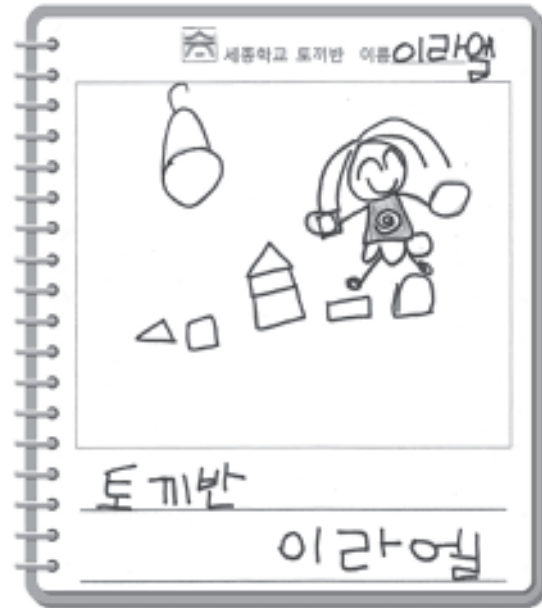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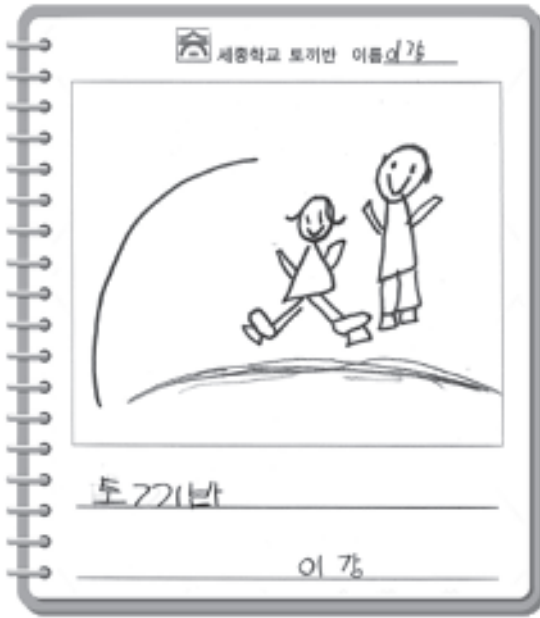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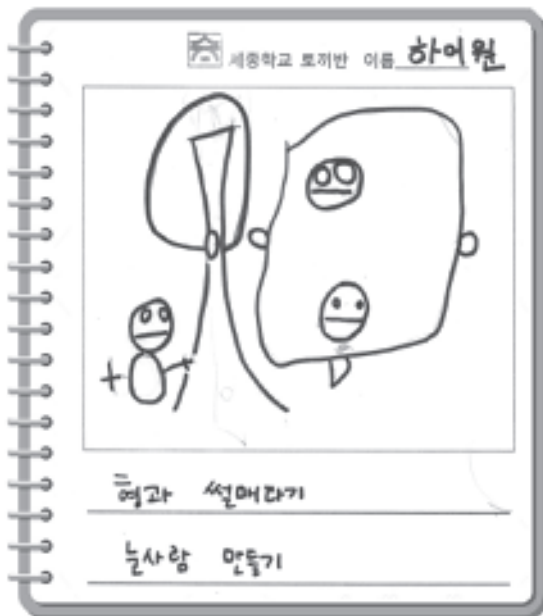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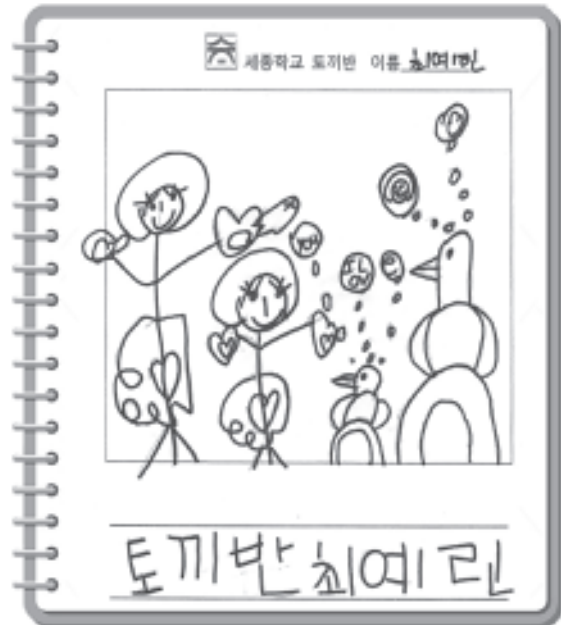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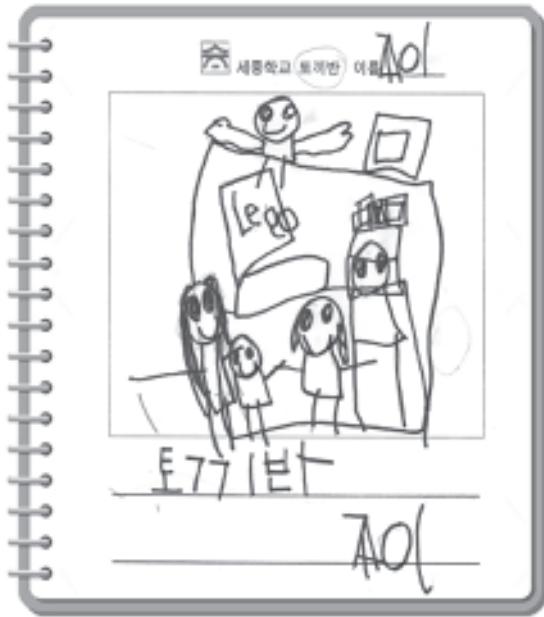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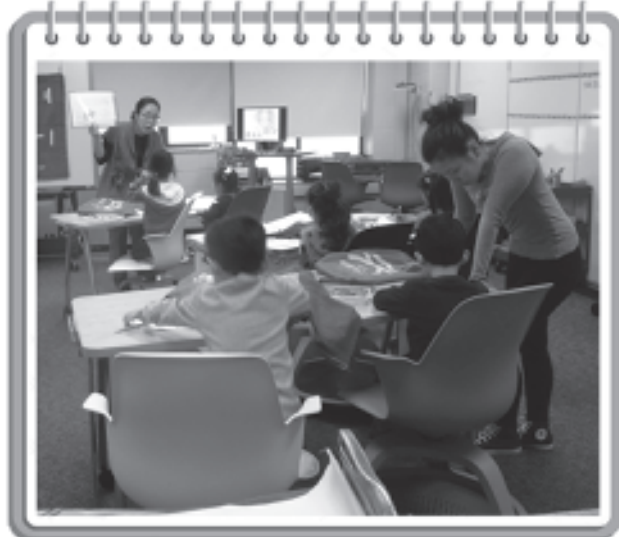














나비반

교사 최희재

햇살 가득한 봄날이 기다려지듯,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3월 입니다.

어느새 나비반 친구들이 새로 배운 낱말들을 읽어가는 요즘은, 토요일이 더없이 행복 하네요.

나비반 친구들도 토요일 오전, 소중한 시간을 세종학교에서 한글공부를 하며 보내는 이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주 1회 수업으로 모음, 자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며 낱말을 통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조금은 더디고 지루하게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업을 통해 날마다 성장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나비반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배운것 보다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나비반 친구들 이지만, 날마다 성장하며 무엇인가를 해내어내는 기쁨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나비반 친구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빛나는 봄날의 햇살처럼 나비반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교 나비만 이름: 강예준

강예준



세종학교 나비만 이름: 강예준

강예준
 나는 바닷속 물고기
 오지 어를 조아
 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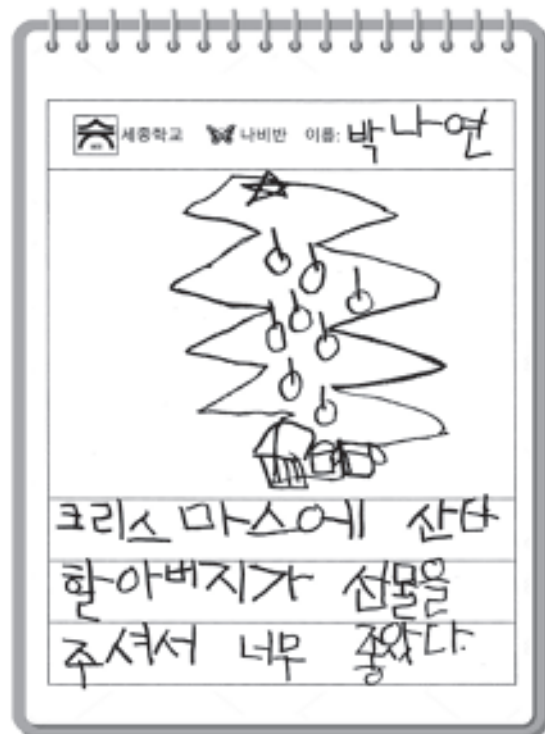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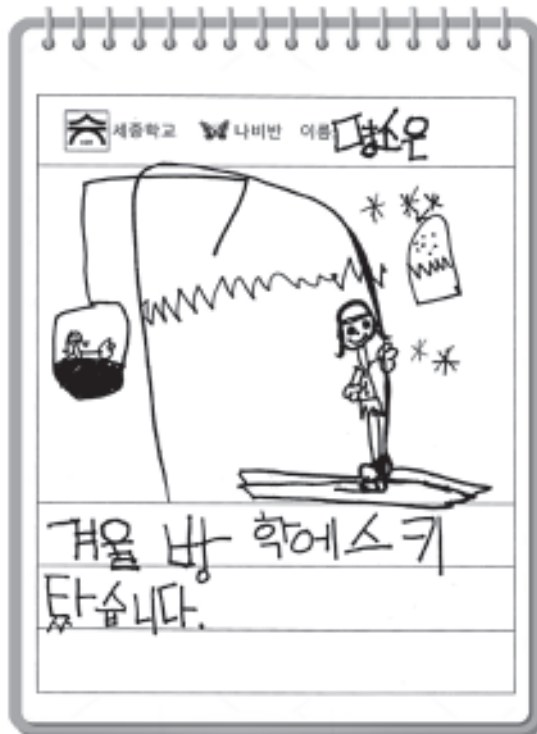


7 4 2 0 5 1 0 2

세종학교 나비만 이름: 강사우

강사우
 아바랑나랑 한글
 공부 했 어요. 수미이
 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박다연

나는 가족들과 캠프와
하리에 가서 미끄
럼도 타고 수영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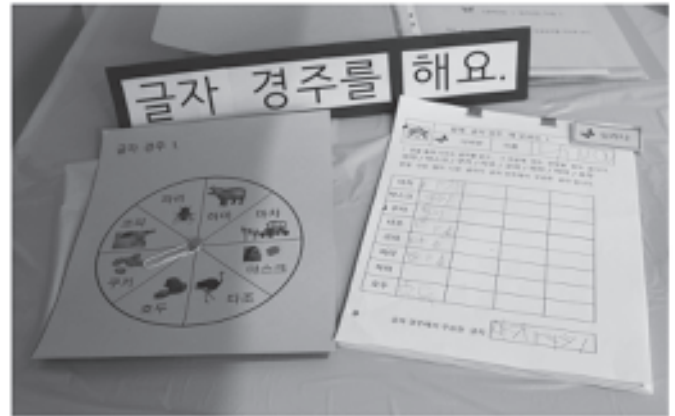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서이안

나는 동생이랑 그림책
보는 것을 좋아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송시윤

나는 아바라랑 미쉬
줄고 줄한다. 땀이
나지만 재미있다.







세종학교 W 나비반 이름: 조세라

나는 모리가 좋아
어른이 되면
모리씨가 될거예요..

세종학교 W 나비반 이름: 함민혁

나는 형들이랑 여리
이랑 눈으로 애벌
레기를 만들었어요





개나리반

교사 박현우

“안녕하세요?” 개나리반 친구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개나리반 첫 날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2학기가 훌쩍 지나가는 지금은 서로 먼저 인사하겠다고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옆에 서서 차렷 자세로 인사 준비를 합니다.

항상 존댓말로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똑똑이 유나, 발표를 잘 하는 야무진 민선이, 수줍음이 많지만 대답할 땐 목소리가 제일 큰 귀엽둥이 서경이, 그림을 잘 그리는 멋진 성민이, 항상 줄을 1등으로 서는 씩씩한 성원이, 개나리반 척척박사 이안이, 반장 같이 늘 듬직한 재연이, “선생님, 집에서 한글 공부 많이 했어요.” 라고 수줍게 얘기하던 눈웃음이 귀여운 지오, 수업 첫 날 친구들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던 피꼬리 유빈이, 조용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할 줄 아는 엘사 공주 현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한 수지, 일주일동안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얘기해주는 아나운서 같은 세이, 항상 개구진 농담으로 친구들을 까르르 웃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민현이와 병현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 하는 마음이 따뜻한 예성이, 모르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예의 바른 카너, 큰 형처럼 수업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젓한 윤후, 재치있는 농담으로 선생님에게 말을 걸어주는 어림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한 딜란, 늦게 개나리 반에 합류했지만 가장 빨리 적응하고 있는 초롱초롱한 소연이, 2학기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항상 선생님을 꼭 안아주던 보고 싶은 나경이까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개나리반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내년에도 꾸준히 한글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개나리반 친구들 최고!!



제니리본 이름: 강유나

저는 그림그리는거를 좋아 해서 혼자 대고 싶어요. 사람한테 빵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강유나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클레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김나경



제니리본 이름: 김나경

나는 클레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모자, 동물, 티켓,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노희언니에게 고향이름만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제니리본 이름: 민선이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민선이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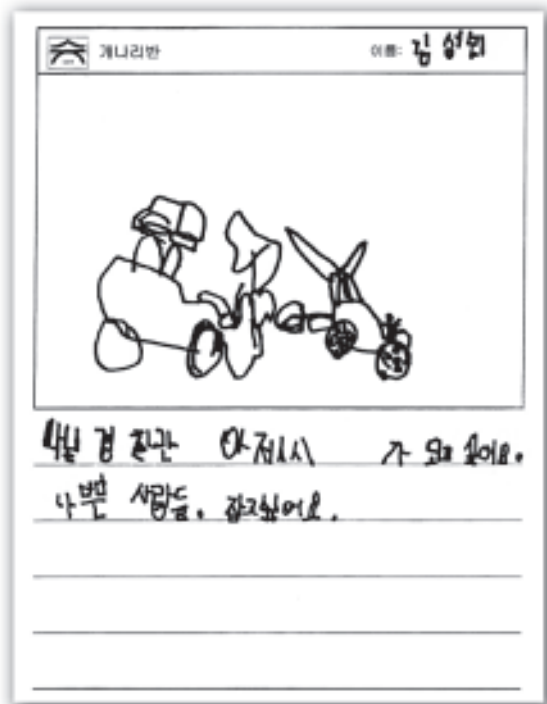


김서경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경찰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김성빈



경찰관 아저씨 가요 싶어요.
나쁜 사람들 잡으려고.



나는 커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친절하
교장 선생님이 될 거예요.



김성원

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김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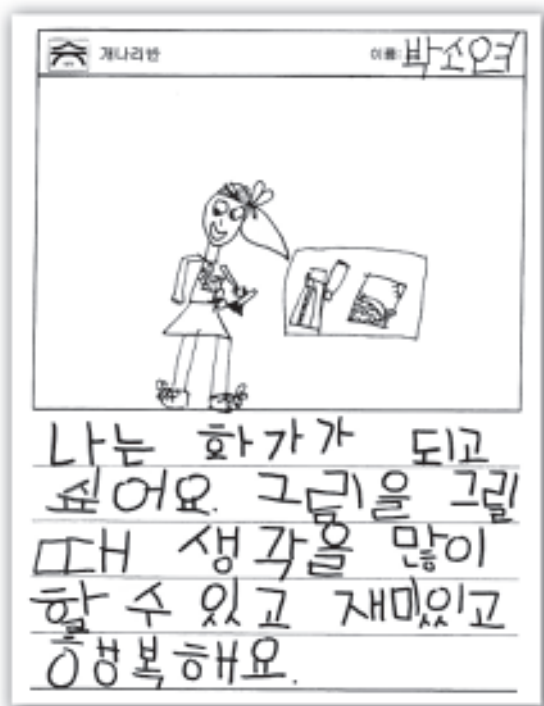
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슈우우우웅!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박소연




박재연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계나리반 이름: 박지오



저는 펄귄이
되고 싶어요.
와 나하면 날고 싶어요.




박지오

저는 펄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성욱




계나리반 이름: 성욱



나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메이저리거
선수가 되고 이바양아사랑에 부당하고
싶어요. 야구는 재미있어요. ㅋㅋ

계나리반 이름: 송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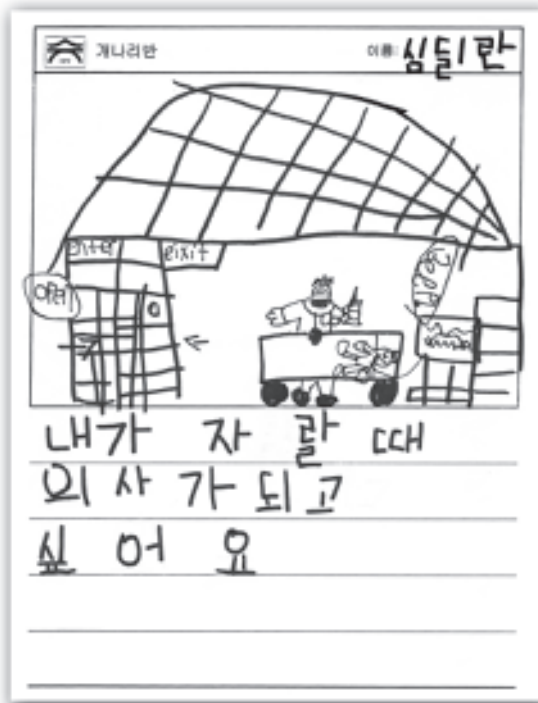


저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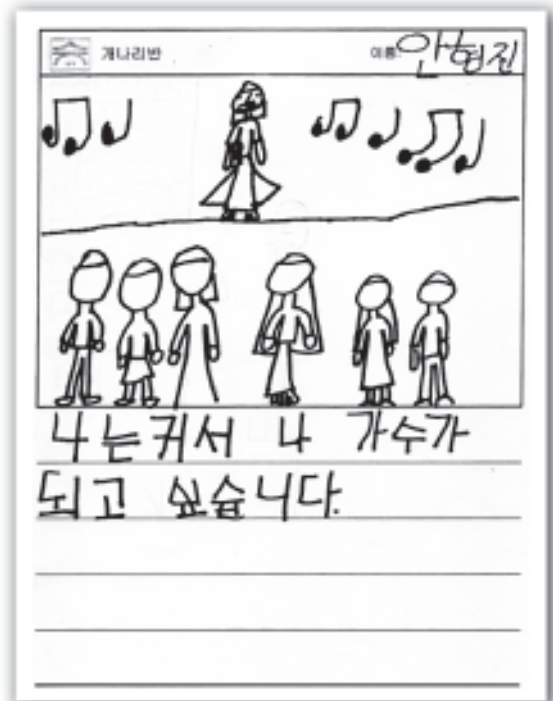
송유빈

저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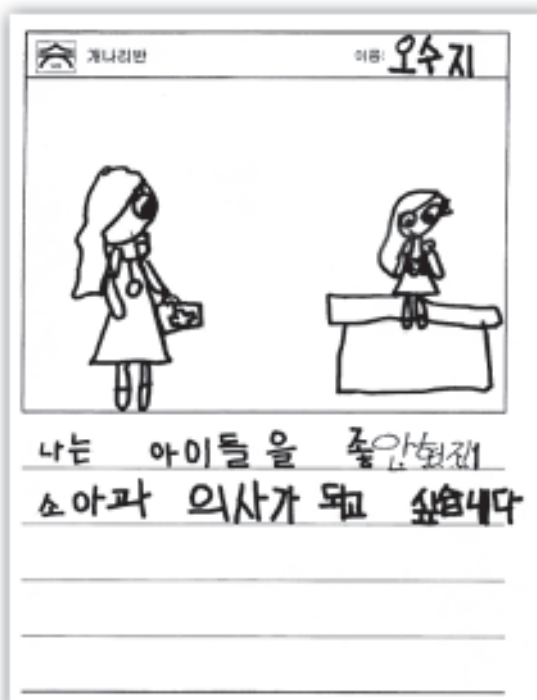
심틸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현진



오수지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계나리반 이름: 정세이




나는 송마 선생님이 되고싶어요. 나는 말타는게 좋아요.



정세이

나는 송마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계나리반 이름: 조민현




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로피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조민현



계나리반 이름: 조병현




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태권도는 나쁜사람한테서 나를 보호 할수 있어요.



조병현

나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주예성



나는 나중엔 크면 아티스트가 될거예요. 그래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주예성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나는 경주차를 전사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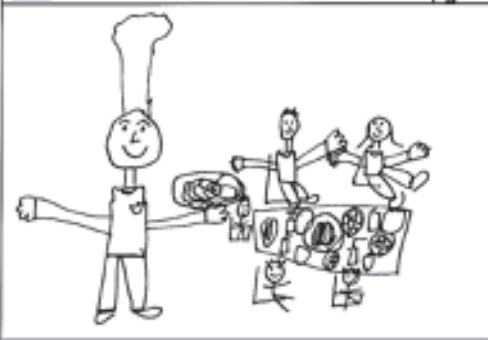
카니

개나리반 이름 카니



나는 크면 경주차 운전사가 되고 싶어요. 멋진 차를 타고 상도 많이 받고 싶어요.

개나리반 이름 하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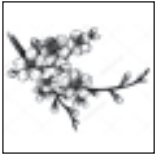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음식만드는것도 재미있고 다른사람들에게 만들어 주니 고맙다고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어림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매화반

교사 한수경

첫아이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세종학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어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이번해에는 막내가 토끼반에 입학하면서 네 아이의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 매화반 담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세종학교에서 처음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학부모님들께 실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에 그동안 학부모로서 제 아이들을 세종학교에 보내며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의 노하우, 그동안의 좋았던 기억들을 수없이 되새겨보며 많이 흉내 내 보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교사로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과 비교해 많이도 부족하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줍음 많고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언제나 교실 안에서 존재감 없이 보냈던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반 아이들은 각자가 우리 반에서 만큼은 돋보이는 존재이며 담임인 저에게 만큼은 특별한 학생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 나름의 노력이 얼마나 저희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잘 전달됐을지 알 수는 없지만 ‘세종학교 매화반’을 떠올려볼 때 좋았던 추억 가득한 시간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9월 입학식 하던 날부터 이번 해에는 유난히 세종학교가 시작하는 토요일 오전에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를 무릅쓰고, 부족해 보이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셨던 학부모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고 많은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주었던 우리 매화반 친구들... 기운이, 지유, 태영이, 하원이, 연서, 재희, 채린이, 다니엘과 1학기를 다 못 끝내고 한국어로 가게 된 진아까지... 친구들 덕에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를 보냈었네요^^ 저에게 잊지 못할 한해를 선물해 준 우리반 친구들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의 신선한 날씨가
좋아요



나는 봄이 좋아요. 봄은 따뜻하고
꽃도 피어요. 밖에서 놀 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왜냐면 우리 눈사람을 만들고
 우리 눈싸움 하고 우리 하트 초코렛
 마셔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돼서요.



나 눈가운이 좋아요.
 나 못잎들이 예쁘고 낙엽이 떨어
 지는게 멋져요 그리고 가을에는
 학교에서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나는 가을이 좋아요 나뭇잎이
 떨어질때 예쁘고 빨강, 노랑,
 갈색, 보라색 나뭇잎도 예뻐요.
 나 수업안에서 노는것도 재미있어요.





여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수영장에서 놀 수 있기 때문
전 수영장에 매일 가고 싶어요.



저는 여름이랑 봄이랑 가을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내 생일이 있고, 낙엽이도 떨어지
수도 있어서 좋아요. 봄은 따듯해서 좋고, 여름에는
학교 안 가도 되고, 캠퍼스랑 할아버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나는 봄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나비도 팔랑팔
랑 날아다니고, 예쁜 꽃도 활짝
피기 때문이다.





저는 여름이랑 겨울이 제일
좋아요. 여름에는 내생일이 있고
학교도 안가서 좋아요. 겨울은
스키를 탈수있고 눈싸움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





난초반

교사 한은영

해마다 세종문집을 준비할 때가 되면 드디어 미시건에 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고 서있는 순간은 기분 좋은 설렘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 우리 난초반 친구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자세로 귀와 마음을 열고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난초반 친구들이 앞으로의 세종학교 생활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즐겁게 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항상 정성으로 열심히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초연, 유지나, 윤수은, 박채린, 김경원, 구양원, 이찬이, 김세진
(이준현, 최서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음식

김정원



짜장면: 저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달콤하고 짭맛있어요.

2017년도에는 미술 스펀디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점프를 자신감 있게 할거예요.
 독물에도 연습을 많이 할거예요.
 새로운 동작 배울때 무서워 하지 않을거예요.
 열심히 선구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될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음식

김도희



나는 드워볶이를 좋아해요. 왜냐
 하면 매운음식이 맛있어요.
 떡도 좋아해요.



이름: 김세진

우리 가족의 명스기빙데이



세원학교
남호반

김주연

Thanksgiving 때 슬립 오버를 래오
하고 했어요. 재미가 많이 있었
어요. 네시에 잤어요. 개성
을 많이 했어요.



나는 패션디자이너가 되고싶어요.
왜 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창조하고,
디자인 하는 것이 좋아요, 꽤, 예쁜
드레스가 많이 있어서 좋아요!

세원학교
남호반

박채린



나에 대해 계획은 좀더
차분해 지는 것이다. 왜냐하
면 차분히 하면 여러가지로 좋기때
문이다. 예로들면 글을 쓸때 더 좋은글도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림 그릴래요.
만들기를 만들래요.
책 읽을래요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나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잡채예요.
잡채안에 야채가 들어있어서 좋아해요. 잡채안에
고기도 들어있어요. 연나하고 오빠도 잡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잡채를 먹고 싶어요.



나는 한국에 갈거예요. 엄마, 아빠, 모두 비행기
타고 갈거예요. 한국에 가면 재미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은 김밥입니다.

저는 김밥 안에 있
는 재료가 좋아요 그 중에
서도 햄이 제일 좋아요.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떡볶이노매워서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떡을 좋
아해서 떡볶이를 좋아해
요. 저한테는 조금 달아서 떡
볶이를 좋아해요.



미래에는 로켓쉽 레이스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랑 비행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빠른 것도 좋아해요. 쉬면 엄마
아빠 내아들도 태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이 될래요.



무궁화반

교사 노정환

매년 문집을 위해 글을 쓰는데도 매년 다른 느낌으로 책상 앞에 앉게 된다. 함께 공부하게 되는 무궁화반 학생들의 색깔이 매년 다르기 때문일까?

학년이 끝날 때 쯤 되면 습관적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된다. 앞으로 만날 친구들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가곤 한다. 지금 무궁화반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었다. 유독 에네지가 넘치는 학생들이 많다고 느꼈었는데...

품안의 자식이라고 그 절제할 수 없을 것 같던 에너지들이 지금은 참 좋다. 그 밝은 모습 속에서 큰 힘을 얻은 적이 더 많다. 아직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은 아이들...지금 그 여정 가운데 무궁화반이라는 길을 걸어 가고 있다. 걸어 가면서 꽃도 보며, 돌에도 넘어져 놀라며, 무서움, 즐거움,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끼며 친구들과 같이 걸어 가고 있다.

이 시간이 나중에 회상이라는 한 순간으로 남겨질 때 적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중한 생명들이 낭비 되어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새삼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 된다. 성장이라는 그림속에는 아마도 의미 없이 칠해진 색깔이 없는 것 같다. 지금도 그 소중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다. 무궁화라는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지길 소망해 본다.





if 내가 만약 ... 라면?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무궁화상 한준혁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퀴즈도 많이 내 줄 거예요. 학생들에게 퍼즐과 보드게임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숙제는 많이 안 내 줄 거예요. 저는 안 무서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껌을 씹지도 않을 거예요. 야단을 많이 안 칠 거예요. 소리도 많이 안 지를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과학자가
된다면



아름다운상 윤지환

과학자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레고를 좋아해요. 먼저 박스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만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더 멋진 것을 만들어요.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면 가장 신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과학은 재미있고 신기해요. 나는 과학자가 된다면 사람들을 위해 약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프면 약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과학자가 된다면 좋아하는 실험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풋볼** 선수가 된다면



고운상 이상연

나는 풋볼 선수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미있어요. 만약에 내가 풋볼 선수가 된다면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와이드 리시버가 되어서 M.V.P.가 되고 싶어요. 움직임이 다양해서 재미있어요. 달리기 연습도 하고 공을 던져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Antonio Brown입니다. 또 좋아하는 다른 선수는 Rob Gronkowski와 Odell Beckham Jr.입니다. 풋볼이 위험하니까 많이 다칠 것 같아요. 테클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슈퍼볼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 **마법사**가 된다면



예쁜상 김찬영

저는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마법사가 되면 친구들에게 신기한 마법을 보여 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법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마법약도 만들어서 투명 인간이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도 있어서 물건을 안 만지고 들 수 있어서 좋아요. 하늘을 날 수도 있어서 좋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마법 지팡이가 있어요. 마법 지팡이로 마법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작가**가 된다면



강승대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작가가 된다면 나는 책을 쓸 것이다. 나는 또한 장편 소설을 쓸 것이다. 내 책의 대부분은 동화일 것이다. 나는 소설을 집에서 쓸 것이다. 나는 또한 낮잠을 많이 잘 것이다. 나는 영어로 책을 쓸 것이다. 내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이다. 나는 많이 잘 것이다. 나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것이다.

내가 만약 **아빠**가 된다면



김단

만약 아빠가 된다면 멋진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려운 산수도 가르쳐 주고, 숙제가 어려우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사 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도 매일 할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또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하면 다 가 줄 거예요. 우리 아빠 처럼 공원에 가고 싶어하면 다 가 줄 거예요.

내가 만약 농구 선수가
된다면



김레오

내가 만약 농구 선수가 된다면 열심히 할 거예요. 난 페스, 슈트,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멋진 농구 선수가 되면 지구의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플른 스테이트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리그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NCAA에 들어 가고, NBA에 들어 갈 수 있어요. 난 NBA에서 열심히 해서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운동 기구를 선물할 수 있고 농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페카가 된다면



김민성

내가 만약 페카가 된다면 성을 만들고 부수고 다른 게임 캐릭터 친구를 만들고 Arena 로 올라 가고 테이크를 만들고 다른 게임 캐릭터가 지면 상을 받고 재밌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페카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김선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 착하게 만들고 또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집을 또 도둑질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게 할 거예요. 나쁜 사람이 총이 있으면 S.W.A.T. 트럭을 부르고 감옥에 또 가게 할 거예요. 만약에 큰 폭탄이 있으면 과학자를 부르고 폭탄을 멈추게 하고 그 폭탄을 버리게 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제일 특별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요리사가
된다면



김예원

내가 만약 요리사가 된다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 거예요. 내 식당 안에 큰 주방을 만들 거예요.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 나는 주방에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 거예요. 몸에 좋은 야채로 샐러드를 만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와 새우로 스테이크도 만들고 맛있는 디저트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듯처럼 내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든 요리가 정말 맛있다는 칭찬받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박제인

선생님이 된다면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 줄 거예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니까
요. 나는 이학년, 삼학년 또는 사학년 선생님이 되고 싶
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학년이고 이학년, 삼학년,
사학년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 행복한 기억이 많기 때문
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크기를 바라요.

내가 만약 디자이너가
된다면



신서인

내가 만약 디자이너가 된다면 예쁜 옷을 만드는 디자인
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전에 천으로 작은 옷을 만들어
본적이 있어요. 옷에 반짝이도 붙여 보았어요. 정말 예
쁘고 재미 있었어요. 천을 고르고 어떤 옷을 만들까 생
각하며 옷을 만들지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
을때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때도 있고요. 만든 옷
이 못생길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만들다보
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
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원라운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사람들을 도와 줄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 주어요.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장미반

교사 윤희란

세종문집을 준비하면서 장미반에서 만난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작문 실력이 뛰어난 은서는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받았고 모든 학습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를 활기치게 이끌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신비와 영언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귀염둥이 세희는 항상 웃는 얼굴로 주어진 과제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진선이와 경륜이는 새학기가 시작되고 중간에 왔지만 금새 잘 적응해서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휘상이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 장미반은 다른 해보다 학생수가 적어서 학생들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빙고 게임이나 상황극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때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그룹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향상되었길 바랍니다.



전영언, 배은서, 윤신비, 유희상, 표진선, 김경륜 (김세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만들기가 좋아요

장미상 배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손으로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을 때 무언가를 만들고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고 좋아져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아요. 종이접기도 있고 클레이를 가지고 사람과 꽃을 만들 수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클레이로 동물을 만드는 것이예요. 돼지와 강아지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상상하는대로 만들때 신이 나요. 마음이 슬플 때는 슬픈 돼지를 만들고 기쁠 때는 웃는 강아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만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가끔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 만든 후에 뒷정리를 안해서 엄마에게 혼이 나기도 해요. 그래도 나는 만들기가 좋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것은 하나뿐이예요. 만들기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손으로 뭐든지 만드는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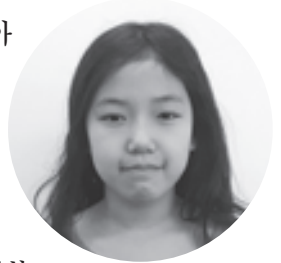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아름다운상 전영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예요. 나는 고양이를 세 마리 키우고 있어요.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이유는 고양이가 정말 귀엽기 때문이예요. 고

양이는 털이 폭신한 구름같아요. 고양이는 앉을 때 빵같이 생겼어요. 두번째로 고양이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면서 내 옆에서 자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내가 슬플 때 고양이는 나를 위로해 줘요.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 몰라요.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고양이들이 장난치는 모습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난 고양이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고운상 김세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예요. 강아지중에서도 특히 외숙모댁에 있는 베리를 정말 좋아해요. 베리는 까만 눈에 촉촉한 코가 반짝거리고 귀와 허리는 무척 긴 강아지예요.



베리는 닥스훈트라는 독일 사냥개라서 짧은 다리로도 정말 빨리 뛸 수 있어요.

지난 여름 한국에 놀러 가서 베리랑 산책을 할 때면 베리가 너무 신나게 뛰어서 쫓아가던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뛰면 베리는 긴 헛바닥을 축 늘어뜨리며 온 몸이 땀으로 젖게 돼요. 산책 후에 외삼촌이랑 베리를 씻기면서 베리의 털을 만져보았어요. 매끈매끈하고 아주 부드러운 털의 느낌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베리를 씻긴 후에 내

가 꼭 안아주면 내 얼굴을 베리가 훤히 봐 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리가 지난 주에 새끼를 낳았
 어요. 한 살밖에 안 된 베리가 벌써 엄마라니…… 베
 리의 새끼들인 모리, 고리, 도리가 너무 보고 싶고 만
 져보고 싶어요. 벌써 한국에 놀러갈 내년 여름방학이
 기다려져요. 베리야, 많이 많이 사랑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예쁜상 윤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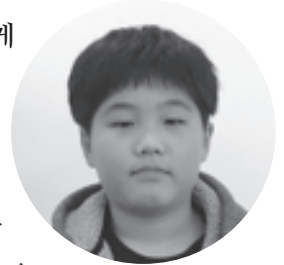
나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내
 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의
 이름은 밍키입니다. 밍키는
 잘하는게 아주 많아요. 두
 발로 걷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심부름도 잘 해요. 밍키는 털이
 길고 귀도 길어요. 밍키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귀여워요. 밍키는 페이스북도 해요. 친구가 오만명
 이나 팔로우하고 있어요.
 밍키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쳐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밍키는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밍키는 인형도 좋아하고 양말을 가
 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밍키는 나에게 가장 좋
 은 친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김정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게
 임이다. 게임은 로봇을 부수
 는 재미가 있다. 게임은 너
 무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게
 임을 하면 심심한 하루도 빨
 리 지나간다. 그리고 게임은 온
 라인이라서 채팅도 재미있다.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
 면 사람들이 많아서 더 재미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
 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도 게임은 종류가
 많고 채팅도 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유휘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세이버 이빨 호랑이에요. 세
 이버 이빨 호랑이는 이빨이
 18 센티미터까지 자랄 수
 있어요. 세이버 이빨 호랑이
 는 지금은 멸종된 동물이에요.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빙하시대에 살았어요.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고양이과 육식동물이에요. 세이버 이
 빨 호랑이는 털복숭이 매머드를 먹었어요. 다른 동물
 도 많이 먹었어요. 세이버 이빨 호랑이의 새끼도 큰
 이빨이 있어요.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온혈동물이에
 요. 털이 매우 두꺼워서 추운 바람을 막아 줘요. 세이
 버 이빨 호랑이는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나는 세이
 버 이빨 호랑이가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표진선

오늘 학교에서 놀이시간에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했다. 우리 팀은 나, 콜린, 리노, 칼로스였고 상대팀은 채이스, 주니, 앤드류, 해이덴이었다. 농구 시합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우리 팀이 먼저 공을 갖게 되었다. 콜린이 먼저 리노에게 공을 패스했는데 채이스에게 공을 빼앗겼다. 채이스가 빨리 골대로 달려가서 공을 던졌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공이 튕겨 나갔다. 그때 공 밑에 있던 내가 공을 잡아서 힘차게 골대로 던졌는데 골인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소리를 질렀다. 우리 팀은 점수를 얻었고 놀이시간은 끝났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농구를 하는게 즐겁다. 앞으로도 농구를 계속 하고 싶다. 왜냐하면 농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해반

교사 유운정

별로 오래되지 않은 세종학교 교사생활이지만, 해마다 아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특별한 아이들이 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는 모두 다 다르고 모두 다 특별할까요? 시간이 쉼없이 흐르듯 아이들은 또 어쩌면 이렇게도 쑥쑥 자라나나요? 아이들과 발 맞추어 한 주 한 주 걷다 보니 벌써 일 년이 또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저이다보니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 항상 무언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게 만들던 해반 친구들의 반짝이는 얼굴들이 이제는 모두 그리울 것입니다. 애들아! 지난 일 년 동안 너희들이 보여준 밝고 넘치는 에너지 항상 고마웠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처럼 멋진 사람이기를!



 내가 만들어 먹는 떡볶이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해상* 김다영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은 J.K.롤링입니다. 롤링은 1965년 7월 31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롤링이 아홉 살 때에 그녀의 가족은 Tut-shill로 이사를 갔습니다. 롤링은



거기에서 St. Michael's Primary School에 다녔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 Alfred Dunne은 해리 포터의 알버스 덤블도어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롤링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롤링은 Wydean Comprehensive School에 입학했습니다. 롤링은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웠고 마지막 해에는 여학생 대표로 활동도 했습니다. 롤링은 Wydean을 떠난 후 University of Exeter에서 공부했고 또 여러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해리 포터에 나오는 말포이와 볼트모어라는 이름도 롤링이 언어를 배우면서 만들어낸 이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롤링은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지연된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해리 포터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해리 포터를 구상한 후 얼마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롤링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쓰고 있던 해리 포터 이야기에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힘든 결혼과 이혼 후 가난해진 롤링은 정부가 주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링은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끝냈습니다. 롤링은 책을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드디어 한 출판사가 책을 출간해주었고 해리 포터는 큰 히트가 되었습니다. 롤링은 해리 포터 책을 6권이나 더 출판했고 모두 베스트 셀러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해리 포터 영화도 크게 성공적이

었습니다. 제가 J.K.롤링을 닮고 싶은 이유는 그녀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롤링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씩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상* 정혜린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초등학교 3학년때 선생님이셨던 최나래 선생님입니다. 최나래 선생님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담임선생님이셨습니



다. 선생님께서는 교실에서는 무조건 말을 '~까', '~다'로 끝나게 하셨고 어기면 가벼운 벌을 주실 정도로 엄격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웃으면서 반겨주셔서 항상 마음은 따뜻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준비나 준비물 준비 등이 다 되어서 완벽해 보이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열정도 많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모으게 하시고 수업이 끝난 뒤 친구와 라면 먹기 같이 특별한 선물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저는 최나래 선생님의 완벽하면서도 따뜻한 점을 닮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벽해보이는 사람과 따뜻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부끄럼을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항상 열정이 가득해 열심히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신감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운상 김결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인체에 관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병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준을 존경합니다. 허준은 조선 중기에 의학자였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병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줍니다. 허준은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자신이 병에 걸릴 수 있거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위험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준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준이 이처럼 용감했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비싼 약초대신 자연에서 히 볼 수 있는 약초를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허준처럼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허준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치료하는지 연구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최선을 다해 고쳐주는 허준처럼 좋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쁜상 김주하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우리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음식도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재미있고 치과 의사입니다. 우리 엄마는 음식



을 잘 요리해 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카레는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습니다. 또 우리 엄마는 피아노와 기타를 아주 멋지게 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연주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를 뽑을 때도 하나도 안아프게 뽑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랑 놀때도 항상 재미있게 해줍니다. 엄마랑 놀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처럼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슬푸른

올해 저는 학교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은 야니라는 중국 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야니는 1975년에 공칭이라는 중국 마을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야니는



어릴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3살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야니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 그러나 야니는 화가인 아버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4살때부터 전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0살 때는 그녀의 그림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져서 전시회 또한 많이 하였습니다. 야니는 Xieyi hua라는 회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몇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야니는 15분에서 1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니는 100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야니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야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야니처럼 좋은 화가가 될 것입니다.

김민주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를
닮고 싶은 이유는 우리 아
빠가 정말 똑똑하셔서 저도
아빠처럼 똑똑하게 되고 싶
어서입니다. 아빠는 수학을 정



말 잘하셔서 제 숙제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다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아빠는 뭐가
고장나면 다 고쳐주십니다. 세탁기, 옷장, 식기 세척
기, 싱크, 변기, 스토브, 컴퓨터에 커튼까지 고쳐주셨
습니다. 아빠는 제게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
십니다. 제가 걱정거리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아빠에
게 여쭙보면 아빠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답
해주십니다. 제가 때로 잘못해서 아빠가 혼내게 되면
아빠는 야단을 치시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빠가 이러
게 좋은 아빠여서 저는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김서연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우리 고모입니다. 우리 고
모는 치과 의사여서 사람들
의 이를 예쁘게 만들고 아
주 착합니다. 그리고 아기
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 고모처럼 치과 의사가 되고 싶고 결혼해서 엄마
도 되고 싶고, 착한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와 예쁜 아기랑 행복하게
삽니다.



문예진

저는 제가 초등학교 삼학년때 선생님이 대해서 즐깁
니다. 저의 선생님은 재미있게 수업을 가르치십니
다. 이 재미있는 선생님의 성함은 미스 재라유츠입

니다. 이 선생님은 얼굴이 예쁘
지는 않지만 진짜 재미있습
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재
미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즐
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
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을때
도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기분



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도 항상 적당히 내
주셨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쎈틀하셔서
시험을 못 보았을 때에도 괜찮다고 해 주었어요. 제
가 미스 재라유츠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이 선
생님을 좋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셔서 저도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주고 싶어
요. 미스 재라유츠는 모두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 선
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사탕을 주었어요. 제가 이 선
생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재미
있고 착하셔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도 미스 재
라유츠처럼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나영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저의 엄마입니다. 우리 엄
마는 착하고 살림도 잘합
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유머러스합니다. 재치도 있
습니다. 엄마는 제 숙제도 도와



주시고 저랑 같이 쇼핑을 가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
는 물건들도 사주고 제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엄
마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잘하시
고 청소도 잘하십니다. 또 우리 엄마는 대학교도 좋
은 대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처럼 자
랑스러운 엄마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엄마는 밥도 잘 만듭니다. 음식의 간도 잘 맞추십니
다. 엄마는 찌개, 국, 반찬, 등을 잘 만드십니다. 물
론 다른 친구들의 엄마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엄마
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엄마의 키는 보통키입니다.

우리 엄마는 많이 웃고 또 다른 사람을 웃기기도 잘 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만난 것도 좋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처럼 결혼도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엄마라서 저는 우리 엄마가 좋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우리 엄마!

원지우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오드리 햅번입니다. 오드리 햅번은 1929년 5월 4일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Audreu Kathreen Ruston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오드리 햅번은 어머니와 함께 런던으로 가서 여학생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레 학교에 다녔고 모델 경력도 쌓았습니다. 그녀는 춤을 진짜 예쁘게 잘 쳤습니다. 저도 오드리 햅번처럼 춤을 아주 잘추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Roman Holiday”라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오드리 햅번은 그 영화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그 영화로 오스카 상도 받았습니다. 저도 오드리 햅번처럼 오스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1993년 1월 20일에 죽었는데 늙었을 때는 유니세프에 들어가 아프리카로 가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오드리 햅번처럼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유진

저의 꿈은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인물 중에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10살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고, 23살 때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26살 때에는 탄자니아 곰비 국립공원에서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침팬지에게 이름을 붙여 연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의 친밀감과 뛰어난 관찰력으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팬지가 야채나 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인이 발견하기 전에 사람들은 침팬지가 과일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제인은 침팬지가 과일뿐 아니라 고기도 먹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난폭하고 조심성이 많은 침팬지와 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침팬지와 자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돌며 야생지역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도와주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돕고 있는 제인... 그녀의 열정과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이수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민이에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로사 파크예요. 로사 파크는 1913년 2월 4일에 알라바마 터스키기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레오나 맥컬리이고 아빠는 제임스 맥컬리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동생들이 두명 있었어요. 로사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어요. 로사가 어렸을 때는 로사의 학교에는 교실이 하나 밖에 없었고 책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인 학교의 아이들은 학교 버스를 타고 새로운 학교 건물도 가졌어요. 로사 파크는 1932년 19살에 결혼을 했어요. 로사의 남편은 레이몬드 파크였어요. 1955년 12월 1일에 로사가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는 남아 있는 의자가 없어서 몇 명의 백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자 버스 기사가 다른 흑인 사람들 세명과 로사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로사가 싫다

고 저항해서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남편이 돈을 주어 로사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로사는 백인 버스 기사에게 옳지 않은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하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도 로사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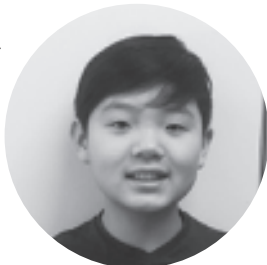
이진영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그는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는 Martin Luther King 목사님과 Alberta Williams King 선생님이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시민운동 지도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시민운동 지도자가 되었어요. 마틴은 용감했어요. 예를 들면 마틴이 행진할때 거기서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었어요. 마틴이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나도 마틴처럼 용감하고 싶어요. 마틴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용감하게 일어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여성과 흑인처럼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마틴이 용기있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찬민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애플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애플 컴퓨터는 게임하기도 편하고 숙제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



어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와 얼굴을 보고 전화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편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스티브 잡스를 닮고 싶은 이유입니다.

한수혁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벌은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빌 게이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돈을 사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 주 일요일 아침에 아빠와 함께 디트로이트에 가서 홈리스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나눠 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빌게이츠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솔반

교사 김계현

정신없이 또다시 한해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학년초에는 서로를 알아가느라 힘들지만, 서로 익숙해지는 이 시기가 되면 헤어지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항상 수업 때마다 진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숙제와 쪽지시험 등으로 애들을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 야단을 자주 치게 되고, 또 제대로 재미난 게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민한 사춘기의 애들이면서도 이런 부족한 교사의 마음을 웃는 얼굴로 받아주며, 하기 싫다 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과제를 해온 솔반 학생들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공부나 과외 활동 등으로 학교 생활이 더욱 바빠지고 힘들어질 시기입니다. 저와 함께 한 이 시간이 우리 솔반 학생들 앞에 놓인 여정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솔상 배재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축구예요.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해요.



첫번째는, 축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요. 패스도 뛰면서 하고 골대에 공을 넣어

야 해요. 두번째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함께 팀워크로 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팀워크를 하면 공을 더 넣을 수 있어요. 세번째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축구 선수들이 패스를 할 때 발기술을 쓸 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날 때마다 봤던 기술을 연습해요. 네번째로 축구는 달리기만 잘하면 안돼요. 축구는 달리기와 몸싸움도 잘해야 상대방이 공을 뺏아가지 않아요. 다섯번째로 축구는 인내심이 많아야 해요. 매일 연습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면 경기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한 것들을 다 잘하면 경기에서 눈에 띄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축구예요.

나의 꿈

아름다운상 한희원

나의 꿈은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만화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아서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미술 교실을 갔어요. 가서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해요. 재밌지만 가끔 어려워져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잡지의 사람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면

서 제가 마음에 아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니, 저는 그림을 더 그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칭찬을 듣고나니 저는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린 그림과 지금 그린 그림이 너무 달라서 웃겨요. 그런데 이제 보니깐 제 그림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더 노력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더 잘 그릴 수 있을 때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고운상 정해찬

내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독일에서 만났던 Shonske예요. Shonske는 독일에서 학교에 유일한 친구였어요. 우리 많은 것을 같이 했어요. 생일 파티도 같이 갔고, 집에 놀러가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사갈때 연락이 없어서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보면 아주 행복하겠어요. 만나면 나를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독일에서 이사한지 4년이 됐는데 나를 기억하는지 궁금해요.

내가 독일에서 재미있는 것을 할 때 Shonske랑 같이 있었어요. 다시 만나면 우리가 같이 한 것을 기억하고 웃고 하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Shonske가 학교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친구였어요. 다시 보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Shonske를 보고싶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조상 할머니

예쁜상 이가희

나는 조상할머니 보고싶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누굴 많이 좋아해요?, 왜 그 사람이 좋아요?’ 예요. 내 질문은 또 조상할머니가 어떻게 영웅적으로 모험을 했는지에요. 그때 했던 일들이



후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자 만나고 싶습니다.

조상할머니 가족들도 만나서 지금 가족과 어떻게 다른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가장 즐거웠던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유사점이나 다른점들이 있는지 예기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을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반응을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물어볼 겁니다. 만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알려줄 겁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가족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와줄 겁니다. 조상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김나연

내가 항상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해리 포터 작가 J. K. Rowling 이다. 그녀는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고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해리 포터” 라는 시리즈를 읽을 수 있게 했다.

그녀를 만나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 하나는

가난한 싱글맘에서 아주 성공적인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의 기분이다.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덕분에 생기게 된 영화, 테마파크 그리고 여러가지 기념품(특히 버터맥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박준수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 재인이에요. 그런데 재인이하고는 가끔 싸워요. 그럴 때는 밉기도 하지만 재인이가 아플 때는 많이 걱정돼요.



우리 아빠는 스포츠를 아주 많이 좋아하세요. 아빠랑 함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의 매니저예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도록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잔소리도 많이 하시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아직 어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가족은 그런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나의 꿈

신서균

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중에서도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해요.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방법도 알아야해요. 많은 아이디어도 생각해야되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할수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나의 꿈

이희현

나의 꿈은 유튜버입니다. 나는 게임 많이 할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쓸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가질 거예요. 내 친구들도 게임 많이 할 거예요. 내 친구들과 함께 게임할 거예요. 나는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나 친구들과 함께 장난칠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많이 살 거예요. 내 친구들이랑 라면을 먹을 거예요. 나는 게임을 잘할 거예요. 나는 전화기 있을 거예요. 나는 섹스크라이버를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지민

저는 세종대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서 궁금증을 풀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물어볼 질문은 바로 어떻게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셨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꼭 어떤 마음

가짐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대왕을 만날 수 있다면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볼 질문은 그 시대에서 왕의 삶은 어땠는지 묻고 싶어요. 왕의 하루하루 일상과 왕으로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또 다른 질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성취감은 어땠고, 뿌듯함을 느꼈는지가 아주 궁금해요.

제일 마지막 질문은, 자신의 노력이 끝내 목표에 달했다고 느꼈는지를 알고 싶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드는지 등 세종대왕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질문들 말고도 상담을 하고 싶고 왕의 생활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종대왕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전주현

만나고 싶은 사람은

Satoshi Tajiri예요. Satoshi Tajiri는 Pokémon을 만들었어요. 만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은 Pokémon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초



등학교에 Pokémon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겼어요. 저는

Nintendo에서 일하면서 저는 animator 하고 싶어요.

저는 Pokémon TV쇼를 animate 하고 싶어요. 저는

Satoshi Tajiri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Satoshi Tajiri는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Satoshi Tajiri처럼 돈 많이 벌어서 charity에 줄 거예요.

저는Satoshi Tajiri을 배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Satoshi Tajiri 만나고 싶어요. Satoshi Tajiri는

Pokémon 만들 뿐 아니라 Mario 하고 The legend of

Zelda 만들었어요. 저는 Satoshi Tajiri 만나고 싶은

이유는 Satoshi Tajiri 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잘살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늘 다짐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를 대할 때는 드러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놀라운 성장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잘 발휘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사제간의 관계를 줄탁동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처럼 말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찢는 것을 ‘줄’ 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 바깥에서 껍질을 찢는 것을 ‘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 은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에 일어나야 온전히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반과의 생활을 돌아보면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저희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하며 힘들어 했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집니다.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고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도전적인 수준의 역사, 문학 수업을 함께 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며 교과 과정을 끌어왔는데, 아이들이 예상보다 잘 따라와줬고,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 또 한 번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나와 우리(나와 국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자아도 든든하게 뿌리를 잘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아에 대한 믿음, 자신감들이 다부지고 울곧게 형성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반 아이들이 모든 과정을 완주해준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이었고, 무엇보다 더 큰 자부심이 되어주었습니다. 토요일, 먼 길 우리 아이들 등하고 시키느라 고생하셨던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하느라 많이 힘들었을텐데, 정말 성심껏 해온 우리 아이들, 모든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우리 달반! 너희들의 멋진 10대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한다!



달상 이연우

아름다운상 손유진

나의 짧은 14년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그 목소리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말라리 요세프자이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간디는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평화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멜리아 에어하트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 났으나 이를 이겨내고 어떤 여성도 이전에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는 일-비행-을 계속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에 있어서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멜리아는 활주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에도 비행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행학교가 비싸다는 것을 알고 돈을 모으기 위해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걸어나가기까지 했다.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야 했다. 아멜리아의 결심은 결국 그녀를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사랑했던 일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나갔던 것을 보면 더욱 분발하게 된다. 비록 세계 일주를 할 때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지만 이 일화는 그녀가 얼마나 비행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녀는 나에게 열정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열정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열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행복입니다. 나의 꿈은 만화 작가입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즐깁니다. 저는 풍성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큰 수학 시험을 앞두고 일 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중간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학 공부만 하고 다른 것을 즐길 시간이 없다는 건 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는지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대학에 안 가도 괜찮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들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나는 내 친구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물론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꿈, 만화작가를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학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할 의욕이 생기고, 또 꿈을 위해 미술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나의 꿈을 잊지 않도록 진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만의 행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 제 꿈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고운상 윤지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슈퍼 히어로 같으세요. 슈퍼 히어로는 하루 종일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저희 엄마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 나시고, 밥을 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빨래도 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공부도 가르쳐주시지요.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나서도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하신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엄마 없는 삶은 상상이 안 갑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잔소리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오늘날의 저는 엉망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치워라.”, “전화기 좀 그만 봐.”, “나만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니?” 그런 잔소리가 없으면 저는 진짜 엉망인 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면에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시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하시는 것보고 느낀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엄마처럼요.



모국어의 중요성

예쁜상 심진희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당연히 배워야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모국어를



배우면 자신의 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담소를 나눌 수도 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아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 하게 되면 한국에 갈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관련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능하게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모국어를 반드시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격

김수진

어떤 사람은 성격이란 타고나는 것이고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성격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성격을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예전의 나는 무척 소극적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수업시간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작년에 어떤 아이가 나에게 대해 조용하고 친구가 없는 아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난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이제는 반친구들과 말도 더 많이 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노력들이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

김윤진

저는 세종학교에 4살 때부터 다녔는데 한국말이 영어처럼 자연스럽게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는 게 좋고 재밌습니다. 세종학교에서 ‘나의 꿈’ 글짓기를 쓰면서 꿈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 번 바뀌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의 꿈은 예술가, 미술 선생님, 디자이너, 댄서, 가수 등 여러 가지로 변모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에서 ‘바느질과 요리 교실’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 제가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요리를 먹을 때면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 쓰는 것도 조금은 무섭고, 칼 쓸 때도 겁이 났었어요. 저는 손이 작고, 손놀림이 어설피데가 있어서 칼질이 쉽지 않았지만, 계속하다보니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방학 때 ‘짬뽕’을 만들어 봤어요. 재료가 완벽하게 다 있지 않아서 집에 있는 것들로 나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언니도 칭찬해주었어요. 엄마와 돈가스 만드는 날에는 제가 고기에 계란과 빵가루 묻히는 일을 담당합니다. 요리할 때 재밌고 만드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요리를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도 요리사셨고, 저희 엄마도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쪽 방향으로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꿈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꿈꾸는 일이 무엇이든 제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저로 인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주변 사람 또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요리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직업이라고도 하



는데 그래서인지 저에게 더욱 매력적입니다.

나의 꿈

이상원

나의 꿈은 형사입니다. 저는 수수께끼를 많이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수수께끼 만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부터 수수께끼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빠랑 형도 옛날에 만화책을 읽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부터 수수께끼 시트콤이랑 영화를 봐서 더욱 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그 시트콤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만약 형사가 되면 FBI처럼 큰 조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형사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안 다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큰 조직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형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 형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꿈은 형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중요성

이준근

저희 부모님은 두 분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 집에서도 한국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손님이 우리집에 오시면 한국말을 사용해야하고, 제가 한국말을 알면 말씀을 나누기 편합니다. 이번 여름엔 한국에 여행을 하러 갔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야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며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에 또 가고 싶습니다. 외국어를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외국어를 잘 하는 것은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부모님의 모국어인 한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주위에도 한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우리 언니

정다운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언니는 똑똑하고 착하고 예뻐요. 우리 언니는 요리도 잘합니다. 우리 언니는 세종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 중국어도 잘합니다. 우리 언니는 태권도 4단이고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우리 언니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응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언니는 내가 슬플 때 기분 좋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니는 친구 또한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에 능숙합니다. 우리 언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언니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언니가 없다면 나는 많이 힘들게 살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언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언니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나의 꿈

최민기

나의 꿈은 영화 감독입니다. 나는 영화를 사랑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내 영화에는 액션을 많이 넣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액션을 재밌어 하기 때문입니다. 촬영하는 것은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친구와 같이 연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학교를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범죄영화도 만들고 싶습니다. 은행강도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 영화는 짜임새가 튼튼하고 격렬할 것입니다. 긴장감도 주고 때로는 비참한 장면도 담을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영화 감독을 할 것입니다.





별반

교사 박지영

“올해는 눈도 추위도 미시간 같지 않은 겨울이구나” 라는 방심을 잠시 하는 순간 놀리기라도 하듯 3월 중순을 너머 때아닌 아늑한 봄이 내렸습니다. 금세 피어나는 눈꽃으로 양갈래 가로수가 하얗게 변신을 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도로 사정에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날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을 그저 바쁘게 정해진 어딘가로 정해진 언제까지 가야만 하는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위험하기만 한 상황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적, 심적 여유를 가질 수만 있으면 눈도 보이고 옆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야 할 지 알게 될 겁니다.

가끔씩 엉뚱한 말로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작은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되는 사랑스런 아이들. 미국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한국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주 여기까지 같이 와준 아이들에게 격려와 갈채를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구촌 곳곳에서 훌륭하게 다들 각자 제 몫을 하게 되겠지요.

항상 웃는 얼굴로,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



뉴스를 보고

별상 정상운

2016년은 한국에서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어진 초대형 비리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



부터 최씨 일가가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청와대의 압력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감독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박근혜 정부는 빼도 박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최씨 일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부가 하는 많은 사업에 최씨 일가가 관여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정과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돈을 안준 기업들에게는 처벌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러한 일들이 밝혀 졌는데도 선의로 그랬다,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며 뻔뻔한 모습을 보여 주어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하야 하라고 촛불 집회를 열었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등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뻔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근혜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책임을 국회에다 떠 넘기는 무책임한 말을 하자 국민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외치며 230만명이 모인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12월9일에 234대 54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는 직무정지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하지만, 박근혜는 대국민을 집회에 참가하고 95%의 뜻을 모으는 듯 국민을 단합하고, 본인을 패러디 하는 듯 패러디 산업을 발전시키어 1970년대의 박정희 신화를 스스로 파괴하여 남아 있던 환상을 깬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업적은 국민들에게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는 것의 뜻을 생각하고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에게 집회를 참가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했으며, 온 국민에게 잘 모를 수도 있는 탄핵과정을 자신의 사례로 교육시켰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민들은 이번 일로 배운게 많았으며, 앞으로 더욱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여행

아름다운상 문수진

삼년전, 저와 제 가족은 한국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할머니를 만나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른 채, 경복궁을 가기로 하고 옛날 궁궐의 생활을 보여주는 공연을 즐겁게 봤습니다. 돌아 오는 길에 길거리 음식도 먹고 정말 재미있으면서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남산타워를 갔습니다. 자물쇠로 거위 꾸민 것 처럼 예쁘고, 화려한 색깔들이 많았어요. 멋진 경치도 보면서 해가 비취고, 바람이 불고, 좋은 날씨에 많은 걸물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 날이 제 머리에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삼년전 한국으로 처음 여행을 하고,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다시 한번 한국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못 가본 미국에 사는 한국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을 가보지 못한 그들을 동정합니다. 이 대단한 대한민국을 가보지 못한 것어요. 저는 그들도 한 번이라도 한국을 가봐서 저처럼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고운상 조우리

다니엘 형 가족과 시카고에 여행을 갔었다. 다니엘 형은 한 누나가 있다. 다니엘 형은 그랜드 래피드에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 가서 형과 만났다. 식당에서 스시를 먹었는데 맛이 있었다. 나는 우동을 먹었다. 시카고에 가서 박물관과 아쿠아리움을 갔다. 박물관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돌들을 보았는데, 색과 모양이 여러 가지였다. 여러가지 공룡이 있었다. 날아다니는 공룡, 꼬리가 긴 공룡, 크기가 무척 큰 공룡이 있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고래쫘도 보았다. 사람 말에 따라 움직이는 고래가 신기했다. 미시간 호수 옆에는 오래된 빌들이 있는 모습이 멋있었다. 또 타워에 올라가서 밖을 보았는데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저녁에는 한국 마켓에 가서 짬뽕과 한국 음식을 먹었다. 찜질방에도 갔는데 여러 가지 방이 있었다. 나는 더워서 오래 있지 못했다.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었다. 다니엘 형 가족과 함께한 여행은 정말 좋았다. 다음에 또 같이 가고 싶다.



환경보호

예쁜상 정여진

지구를 지키고 싶으면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종이, 플라스틱과 병들을 재활용을 하면 지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해양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를 보호하고 싶으면 먼저 버린 것을 청소를 해야되요. 또한 나무를 더 심어야 돼요. 공장들 때문에 연기와 스모그가 공기를 많이 채우고 있어요. 나무를 더 심으면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를 오염시키면 영항 Wall-E 처럼 지구가 너무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지구에 못 살게 됩니다. 영화에서, 지구가 쓰레기가 넘치고 식물들이 없어서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못하게 돼요. 우리는 지구를 높이 평가해야 돼요. 지구를 살릴수 있는 기회는 하나만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구를 아직 구할 수 있어요.



한국 여행

김래아

지난번 한국 여행은 아주 짧았다. 보통 한국에 갈 때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반 정도 길게 다녀 오지만 작년에는 봄방학을 이용해서 10 일 정도 짧게 다녀왔다.



할아버지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봄에 갔다 왔다.

한국에 봄에 나간 것은 처음이었다.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봄에 나가니까 덥지 않고 따뜻해서 좋았다. 그리고 나무에 꽃도 많이 피어서 보기에 아주 예뻐다. 하루는 엄마랑 인사동에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내가 골라서 디자인 할 수 있는 팔찌도 샀다. 양말이랑 머리핀도 샀다. 한국은 여기저기 걸어나다니면서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다. 오랜만에 지하철도 또 타서 좋았다. 사촌인 서진이네 집에 놀러갔을 때는 서진이랑 둘이서 집 앞에 있는 여러 가게들을 돌아다녔다. 한 건물 안에 작은 가게들이 아주 많았다. 둘이서 떡볶이도 사먹고 문방구에 가서 예쁜 펜이랑 노트도 샀다. 어른들 없이 우리끼리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할아버지 전시회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전시회 중에 내가 할아버지 사진도 많이 찍어드렸다. 할아버지 그림 색깔이 너무 예뻐다. 한국의 봄 색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다음에도 또 봄에 한국에 나오면 좀더 오래 있다가 오고 싶다.

나의 꿈

김연우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 기관사?”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직은 몰라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때쯤에 알겠죠.” 나는 여태껏 그런 생각으로 커 왔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이 다가오고 있고, 9학년이 있는 나는 내가 커서 뭐가 될 것인지, 나의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의학쪽으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빠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많은 책을 즐기면서 읽었다. 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밖에서 놀러 다닐 때, 나는 매

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작가가 되고 싶었다. 호러 소설을 써서 언니에게 가끔씩 보여 주기도 했고, 일기장에 생각난 새로운 이야기도 썼지만 결국엔 포기했다. 학교 일 때문에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새악을 아예 잊어 버렸다. 그 당시 엄마도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꿈이 뭔지 몰라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한국에 가고 싶다

박태정

한국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곳의 생활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8학년 여름 방학에 한국을 방문한 이후 더욱 가고 싶어졌다. 그곳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 누나가 듣고 있는 케이팝을 듣고 더욱 가고 싶어졌다.



집 앞의 가게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참 싸고 맛있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어 한국말도 잘하고 이곳 저곳으로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을 만나고 싶다. 팬미팅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쇼핑도 다니고 싶다. 나는 한국 옷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게 되면 할머니와 친척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한국에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고 싶다.

내 이름

유수민

미국에서 내 이름은 특이하다. 이상하고 유별나고 외국스럽다. 사람들이 부르기전에 망설이게 하는 이름이다. 느리고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뺏뺏한 고무줄처럼 늘린다. 보통은 틀리게 발음하지만 난 그런거에 익숙하다.



한국어로 내 이름은 순수한 보석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뭐 그냥 수민이다. 이상한 이름, 오타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름인지 계속 별명들이 생기고, 별명들은 팬케익처럼 쌓인다. 더 생각때마다 내가 더 특이해지는 느낌이다. 수, 수수, 수미니, 수지.. 끊어질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난 별로 상관 안한다.

우리 부모님은 사람들이 날 놀리기 어려운 이름을 짓고 싶었다고 하셨다. 뭐, 내가 한국에서 산 5년동안은 효과가 있었다. 평범한 이름이었으니까. 미국으로 오니 사람들의 의견은 멈추지 않았다. 별명들은 새로 생기고, 다시 사라지는 패턴의 반복이었다. 나는 미나라서 수미니가 되었고, 두글자는 너무 많아서 수가 되었다. 나머지 별명들은 그냥, 그냥 그랬다. 내 이름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었나보다.

나는 사람들이 왜 내이름을 어렵고 이상하게 보는지 이해가 안간다. 나는 꽤 심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내 이름이라서 그런걸 수도 있다. 영어이름을 쓴적도 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더 웃긴일이었다. 왜냐면 내가 내 이름이 싫다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유수민일테니까. 그래서 난 절대 내 이름을 바꾸지 않을거다.

나의꿈

이준오

나는 어른이 되면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나는 책읽기가 너무 좋아요. 나의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책읽기에요. 나는 항상 책을 읽었어요. 책은 믿음을 가르쳐주고 감정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창조적인 머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는 쓰기도 좋아요. 나는 뭘 쓰면 내마음이 쓰는 것에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유명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역사에 남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깊은 사상, 생각들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하기 위해서 나는 책을 계속 읽고, 계속 쓰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한 생각들이 진짜 '나' 이고 싶어요. 나는 죽을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음세대에 좋은 믿음이나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역사에 나를 기억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꿈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의꿈

이진현

어려서부터 저는 자동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도 다 좋아했습니다. 디자인이 멋진 차를 보면 나도 저렇게 근사한 차를 만들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

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엔지니어이십니다. 아빠를 닮아서인지 저도 뭔가를 만들고 디자인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커서 제가 디자인해서 누구보다도 멋지고 잘 나가는 차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희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에게 하시는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있지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또참고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꿈을 꼭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가장 으뜸은 두말 할것도 없이 ‘음식’ 이다.

그 중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끓여 주셨던 오골계 삼계탕은 아마도 잊지 못할 맛 일 것이다.

이 모든 경험들은 늘 나로 하여금 한국으로 여행 하고 싶게 만드는 소중한 기억들이다.

내가 여행 하고 싶은 곳

임재영

누군가 내게 어디로 여행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않고 ‘한국’ 이라고 말할 것이다.

비록 몇년 전에 다녀온 작은 기억들 뿐이지만 말이다.

내 마음에 그때 두달 간의 여행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의 친척들과의 만남 들과 TV 속에서만 보았던 유명한 장소들을 가본 기억들은 그저 신기하고 즐거움 뿐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많은것이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했다.

고궁 들을 가보았을때는 미국과는 비교 할 수없이 깊고 긴 역사 또한 나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했다.

잠시지만 다녔던 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은 이곳의 친구들과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따뜻했던 기억을 남겨주었다.

그 밖에 현대적이고 바쁘게 보였던 도시의 거리와 건물들도 아직 생각이 난다.





하늘반

교사 최수나

새 학년도가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바쁜 고등학교 생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세종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참 대견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다행히 올 해는 재외 교포 고등학생들 수준에 맞는 좋은 교재로 어휘, 문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의 기본 정서와 문화의 기반이 되는 단편소설과 시를 부담없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배워보고, 한국 역사 문화 배경을 알 수 있는 영화도 해석해 보고, 신나게 한국노래도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어도 하고 신기해 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며 더 넓게 성장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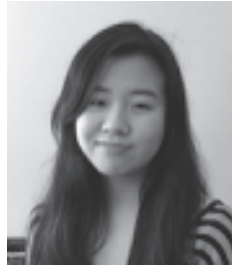
공부하기 싫어하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 기특하고, 고등학생이지만 칭찬이나 스티커에도 여전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귀엽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로나 대학진학에 대해 고민도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꾸준히 세종학교에 다니며 부지런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잘 해 나갈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들과 함께 해 주시고 봉사활동도 해 주시며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한국영화 '동주' 감상문

세종대상 안나현

요즘 영화들은 많은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영화 '동주'의 감독은 적은 예산을 쓰며 화려하지 않은 흑백화면으로 한국사를 알리기 위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제목은 '동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 윤동주를 바탕으로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 일본의 침략과 그에 대항하여 싸우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나 역사를 잊고 사는 어른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영화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시를 좋아하는 동주와 좋은 글쓰는 실력을 가졌던 몽규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촌지간입니다. 조용했던 동주와 달리 몽규는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의 생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몽규는 독립운동도 위험을 무릅쓰고 참가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의 그들은 일본의 독재를 피부로 느꼈고 창씨개명을 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부끄러운 감정을 시로 씁니다. 조금이나마 글이나 시로나 투쟁하기 위해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군에게 독립 투쟁 혐의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인체 실험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두 젊은이는 감옥에서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인 윤동주는 '별헤는 밤' 등 여러 시로만 알려져 있어서, 그 당시 윤동주의 감정과 그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몽규라는 인물은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글쓰기 실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위험을 감수하고 조국을 위해 살았던 송몽규는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이 분

들과 같은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더구나 역사적이거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는 좀 더 꺼려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슬프고 아픈 한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알고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있는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단편소설 '소나기' 감상문

하늘상 최하영

나는 소설 '소나기'를 읽고 나서 소년과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직설적이고 즉흥적인 요즘 시대의 사랑과 달리 슬프지만 낭만적인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내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한번도가 본적이 없는 한국의 산골 풍경이 눈으로 그려지면서 나도 소년과 소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다.



산골에서 사는 소년이 서울에서 온 소녀를 마음 속으로 좋아하지만 처음에는 다가가지 못 하였다. 하지만 소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면서 수줍음이 많은 소년과 친해졌다. 어느 날 소년과 소녀는 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원두막으로 간신히 피한 후 돌아오는 길에 개울물이 불어나서 소녀는 소년의 등에 업혀서 개울을 건널 수 있었다.

그 일이 있던 후에 소녀를 그리워하던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날 맞은 소년기 때문에 감기를 앓았다는 소녀는 이사를 갈 거라고 쓸쓸하게 말 하였다. ‘소녀가 이사하는 것을 가볼까 어쩔까’ 망설이면서 잠이 들려고 할 때 소년은 마을에 다녀오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소녀는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물어 달라’ 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죽는 순간에도 소녀가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물어 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웠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못 했지만 소년도 마음 깊은 곳에 소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아갈 것 같다. 소녀에 대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소년에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영화 ‘히말라야 감상문’

아름다운상 홍아리



영화 ‘히말라야’ 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엄홍길 대장과 휴먼원정대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데스존에서 생을 마감한 후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아무 보상도 없는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인 것 같다.

히말라야는 보는 내내 극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나는 처음에는 산악인들이 거대한 산을 타는 장면들을 기대하였는데, 산악인이 아닌 ‘인간’ 그리고 ‘가족’ 인 주인공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산을 타는 장면들 사이에서 서로 같이 웃고 떠들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소소한 재미를 주었다. 휴먼원정대에 속한 사람들의 깊은 동료애와 사랑, 그리고 배려가 그려지면서 그들의 무모한 도

전은 더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아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도전을 동료 한 명을 위해서 무작정 해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감명적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가 조금 길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히말라야로 떠나는 여정이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여지면서 영화가 조금 반복적이게 느껴졌다. 또한 위험할지 알면서도 왜 굳이 무리하게 산을 올라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었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영화 주인공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주인공들의 열정과 순수한 마음은 아주 감명 깊었다. 산악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들의 열정적인 정신과 동료애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의 꿈

고운상 이민영

저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어릴 때는 강아지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진짜 강아지라고 생각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날 만큼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미래에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항상 질문합니다. 막상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그 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대학교 입학원서를 쓰면서 나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동물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수의사의 꿈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TV에서 유명한 수의사들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의사들은 동물들을 도와주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동물과 같이 일도 하고 도와주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12년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올해 드디어 강아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막상 강아지를 직접 키우다보니 수의사가 더 되고 싶었습니다. 강아지가 아팠을 때도 제가 강아지를 직접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직 수의사가 아니라서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은 열심히 공부해서 강아지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동안 꿈이 계속 바뀌어왔는데 이제는 확실히 수의사가 되어 동물과 함께 일하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세중학교 후배들에게

김동욱

대학에 갈 일이 다가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이 머리 속에 상상이 된다. 어색하지만 쉬웠던 중학교 생활에 대해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우선 ‘재미있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싶다.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좋거나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거나 그런 것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 영향이 없다. 중학교에서는 소중한 자유시간을 잘 보내고 재미있게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중학교때 사귄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 많이 없는 자유시간은 악



기, 운동 아니면 기능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것들은 나중에 자신감을 높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가 제일 자신감이 낮을 때인 것 같은데, 이때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나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중학생이 재미있게 지내고, 나만의 기능을 배우는 시기라면, 고등학생 시절은 ‘열심히 사는 시기’ 인 것 같다. 나는 9학년 그리고 10학년 때에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 축구, 쉬운 과목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별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이 별로 재미가 없었고, 뭘 배운다는 느낌이 없었다. 11학년 때에는 AP과목을 4개 듣고, 운동, 음악, 클럽활동 3개 그리고 교회활동도 다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일 년이 제일 재미있었고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친구들도 쉽게 사귀고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자신이 발전한다는 느낌이 그 때 들었고, 그것이 나중에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그 때가 가장 보람찬 시절을 보낸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를 고등학교 시절에 지켜야 한다. 첫째, GPA . GPA가 높을 수록 좋다. 사람들은 당연히 GPA 숫자가 그 사람의 똑똑함을 판단하는 줄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GPA는 그 사람의 ‘성실함’ 을 표현한다. 숙제 내고, 공부하고, 테스트 보고 이러면 누구나 좋은 GPA를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학교 숙제를 내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GPA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과목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둘째, Activity활동. 활동을 많이 할 수록 좋다. 특히 거기에서 리더를 하면 더 보기에 좋다. 셋째, essay에세이. 대학 입학을 위해 에세이는 매우 중요하다. 일찍 에세이준비를 시작할 수록 글이 좋아진다. 넷째, ACT와 SAT . 이것 역시 일찍 준비할 수록 쉬워진다.

이 네가지를 열심히 지키면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생활하며,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

를 유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랑... 그 가장 귀한 선물

김혜진

저는 노바이 하이스쿨 11학년에 다니고 있는 공부 스트레스가 많고, 연예인에 관심이 많고,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열 여섯살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11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2011년 8월에 사랑하는 아빠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암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저는 “암” 이란게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그저 엄마가 쉽지 않은 병이라고 했고, 생각보다 길고 힘든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아빠는 반드시 이겨내고 괜찮아지실거라 해서 그런줄만 알았어요. 아빠는 강한 사람이라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빠의 병을 낫게 해주실꺼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저의 굳은 믿음과 달리 44일이 지난 9월의 마지막 날에 예고도 없이, 아빠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쉼 새 없이 벌어지던 그 날, 제 기억 속에 남겨진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선생님댁에서 동생과 sleep over할 계획에 신이 나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많이 아프시고 아빠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아빠를 일주일 만에 본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sleep over를 못하게 된 것때문에 더 많이 속이 상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몸에 붙어있던 많은 줄 끝에 연결된 스크린 화면에 보이던 숫자들이 갑자기

“0” 이 되었던 순간이 저의 기억 속에 남겨진 일이에요.

그 “0” 이라는 숫자는 아빠의 심장이 멈춘 것이고, 또 아빠가 더 이상 힘들게 아프지 않다는 의미이고, 우리와 이별을 고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쉼새 없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궁금점은 많았지만...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뭔지 잘 몰랐고 와 닿지도 않았어요.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과 허전함이 그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어수선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말은 “SMILE”이었지만 그 것처럼 웃으며 지낸다는 게 힘들었을 엄마는, 우리에게 되도록 다른 환경은 변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셨고 어린 저와 동생 곁에서 저희가 안정감을 찾도록 지켜주셨어요. 또 제가 이모들이라 부르는 엄마의 소중한 친구들은 엄마 옆에서 많은 것을 함께 해주셨고 힘을 실어 주셨어요. 주변의 많은 분들 뿐 아니라 저희가 잘 모르는 분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빠의 사랑이 떠나간 빈 자리에 엄마의 눈물로 채워진 헌신과 사랑이 채워졌어요. 이모들은 우리가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느끼지 않게 많은 것을 함께 해주셨고, 많은 분들의 함께 눈물로, 위로로, 조용한 배려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그 분들의 진실함을 느끼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식구들에게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웃으며 살기 바란다는 아빠의 소망처럼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고,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아빠의 일로 알게 되었지만 이런 아픔과 슬픔, 고통은 결코 사랑이 끊어진 것도 끝이 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엄마와 주변 분들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전히 아빠가 그렇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창작시 “도자기 상자”

유수하

할 추억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아빠의 일이 아프고 슬프기만 했다면 저와 우리 가족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거예요. 아빠와의 이별로 아빠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신 사랑들이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다르지 않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는 크고 넓은 사랑이 존재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아빠와의 이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제게 느껴진 것은 몇 년이 흐른 뒤였고... 작년과 올해는 저의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소중한 이모들과 목사님 가족과 헤어지는 또 다른 이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동안 제가 받은 소중한 사랑으로 인한 따뜻함과 큰 힘으로 잘 커나가고 있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빠, 엄마의 사랑 그리고 제가 어려운 시간 중에 경험했던 주변분들이 이어주시는 넓고 큰 사랑들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어요.

이제는 저의 이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제 인생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지만 이제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은 나와 같지 않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것이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 뿐만 아니라 아픔도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희가 경험하고 받은 귀한 사랑의 힘으로 저와 저희 가족은 아픔과 절망을 잘 견디었고 계속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받은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교에서 만들어 온 도자기 상자

푸른 뚜껑에 하얀몸체
알록달록하게 세모들

기대를 했었다.

‘선생님이 아이들 중에 내가
제일 잘 만들었대!’

자랑스럽게 으름장을 놓으면

엄마는 웃으며 ‘다 컸다고 생각했더니, 아직은 아이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길 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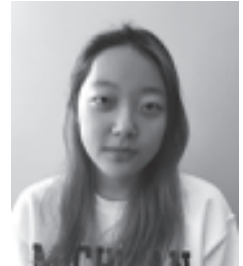
생각보다 떨떠름한 반응 “됐어” 툭기는 대꾸

‘내가 얼마나 뼈빠지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뭔가 실망스러운 반응 뭔가 더 기대한 나

내 년에 대학을 가도 올 해 어른이 되어도

다 컸다고 생각해도

나는 아직 아이인가 보다.



나의 꿈

이태석

제가 세종학교에 다니면서 매년마다 “나의 꿈”에 대한 글짓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꿈은 수영선수로 시작되었고 과학자, 의사등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자마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꿈이 영원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저의 꿈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의대를 들어가고 싶은데 무슨 의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의 지난 실수가 제 시야를 너 크게 뜨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의사 아니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게 되었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안심시키고 인생도 구하는 것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주니어와 마지막 씨니어 학년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포기 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제가 상상해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사가 되면 돈을 모아서 세계를 여행할 것입니다. 이 꿈은 제가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시작해서 50개 주를 관광할 것입니다. 라스 베이거스, 그랜드 캐년, 로스 엔젤리스, 디즈니 월드등 모두 다 가볼 것입니다. 미국에서 관광할 것을 다 보고 그 다음 아시아 대륙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 스페인을 다 갈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호주도 가 볼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관광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입니다. 문화를 배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계 여행을 하다보면 친구가 전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은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요

즘 세상은 정치적으로 매우 소란스러운데 이것이 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소란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고 데모하는 것들은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지게 하는 것이 저한테 제일 유익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세계의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있지만 잘 못된 것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꿈

이형근

나는 자라면서 꿈이 여러가지가 있었다. 소방관, 과학자, 경찰, 가수, 댄서 등등..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 없이 말이다. 리더가 되어 일을 할 수 있으면 멋진 일이 되겠지만 아주 낮은 자리부터 열심히 경험하여 조금씩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면 더욱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성장하고 결국에는 나의 꿈을 이루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또한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도 잘 알고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앞으로 Business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Finance 관련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주변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꿈을 이루는 것이다.



메밀꽃 필 무렵
이준서



수호의 '메밀꽃 필 무렵'

“물론 시골은 산밖에 딱딱하게 깔려 있고, 당초를 치는 무덤만이
죽은 것이. 그 모든 것이, 동심처럼 맑고 순수하게 손에 잡힐 듯이
넓어, 끝까지 유수한 일대가 안을 감싸 주었다. 산에서는
공포처럼 다가와서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돌아 버릴 수밖에 없다.”

• 그리고... 평범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 속에서 자유를 깨달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평범한 삶이
동이의 어머니는
평범한 것
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익의 '메밀꽃 필 무렵'

“물론 시골은 산밖에 딱딱하게 깔려 있고, 당초를 치는 무덤만이
죽은 것이. 그 모든 것이, 동심처럼 맑고 순수하게 손에 잡힐 듯이
넓어, 끝까지 유수한 일대가 안을 감싸 주었다. 산에서는
공포처럼 다가와서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돌아 버릴 수밖에 없다.”

• 그리고... 평범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 속에서 자유를 깨달고 싶어서!

그래서 평범한 동이와 함께
평범으로 갔다. 평범한 동이의 어머니를
봤더니 딱 멀었다. 그날 뒤에
평범한 동이와 함께
동이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신입반

교사 임선규

이번 2016-2017신입반은 최고의 신입반이었습니다. 저희 반 구성원이 한국어를 배운 시기도 같고, 배우는 속도도 비슷하다 보니 일치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신입반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 항상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프로 출석이었으며, 모두 진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저희 신입반 학생들은 조금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터득해 가는 것에 감사하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반 소피아는 장래에 한국 관련 International Business를 하고 싶어하고, 린지는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고, 라비는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빈빈은 한국어를 아는 것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열심히 하고, 앨리슨은 한국 드라마와 K-pop이 좋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고, 호뒤는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있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 에반(은수)은 한국 여행을 대비하여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 모두에게 앞날에 발전과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나요?
어땠나요?

라비

축구를 좋아했어요. 수학을 잘 못했어요.
춤추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매일 빵을 먹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자주 친구들과 영화를 봤어요. 태권도를 했어요.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나요?
어땠나요?

은수 (예반)

저는 초등학교 때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산수를 안 좋아했어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딸기를 먹었어요.
빵을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나요?
어땠나요?

호우뒤

저는 초등학교 때 무단장에서 살았어요.
영어 공부했어요.
고양이를 안 좋아했어요. 모기를 안 좋아했어요.
무를 안 먹었어요.
수학을 잘 했어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봄을 좋아했어요. 버섯을 안 먹었어요.
운동을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나요?
어땠나요?

안린지

저는 초등학교 때 우유를 마셨어요.
제니와 친하게 지냈어요. 책을 읽었어요.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과자를 먹었어요.
도서관에 갔어요. 자전거를 탔어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놀이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거바니 선생님을 안 좋아했어요.

나의 하루 생활

소피아

나는 보통 6시에 일어 납니다. 6시20분에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6시50분에 옷을 입습니다. 7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빵으로 먹습니다. 7시15분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배웁니다. 10시 30분에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낮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보통 2시35분에 집에 갑니다. 저녁에 내 방에서 숙제를 합니다. 8시에 텔레비전을 봅니다. 보통 9시에 갑니다.

하와이

라비

몇 년전 나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갔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나하고 가족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매일 아침으로 와플을 먹었어요. 그리고 주스를 마셨어요.
호텔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나는 자주 해변을 걸었어요. 해변에서 바다 사진도 찍었어요.
나는 하와이 바다에서 수영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족과 함께 시내로 갔어요. 우리는 시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내를 걸었어요.
우리는 많이 피곤해서 호텔로 돌아 왔어요.

나의 하루 생활

호우뒤

나는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6시20분에 옷을 입습니다. 6시30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6시50분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배웁니다. 11시26분에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낮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합니다. 보통 4시에 집에 갑니다. 저녁에 내 방에서 낮잠을 잡니다. 9시에 숙제를 합니다. 보통 12시30분에 갑니다.

빈빈 커피숍

빈빈

나는 커피숍을 하고 싶어요. 커피숍 이름은 빈빈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은 Rochester Hills에 있어요. 커피숍 옆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커피숍 앞에는 우체국이 있어요. 커피숍 뒤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옆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커피숍 안에 탁자가 12 개, 소파가 4 개 있어요. 선반도 있어요. 선반 위에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커피 종류가 아주 많아요.

커피는 주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와요. 커피는 아주 맛있어요. 손님들이 많아요.

빈빈 커피숍은 매일 아침 7시에 열고, 저녁 11시에 닫아요. 매일 음악을 들어요. 재즈 음악, 팝 음악, 컨트리 뮤직,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들어요. 커피숍 테마가 꽃이에요. 꽃 그림들이 벽에 있어요. 커피숍안에 꽃이 많아요. 탁자위에, 바닥위에, 창틀위에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 커피숍 꽃을 아주 좋아해요.

친구가 자주 와요. 그리고 파티해요. 가장 인기있는 커피는 Nica Altisme이예요. 웨이터가 커피를 탁자에서 직접 만들어요. 웨이터가 아주 좋아요. 커피는 안 비싸요.

빈빈 커피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색동반

교사 조수원

색동반 첫 수업을 들어온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 덧 일 년이란 시간이 코 앞에 와 닿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한 해는 세종학교와 색동반 친구들과 처음 인연을 맺는 의미 깊은 한 해였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대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몰라 설렘 반 걱정반이었지만, 아이들과 지내며 친숙해지며 저 또한 함께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반 아이들과 달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한국어를 가르칠지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업 준비가 비록 미숙했지만 아이들의 열정으로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다은이, 세심하게 수업을 잘 따라와 준 하나, 명랑 발랄한 나탈리, 의젓한 줄리안, 형 누나들 잘 따랐던 막내 시원이.. 한국어를 쓰고 발음하는데 아직 서툴고 힘들지만 그때그때 열심히 따라해 나가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1년을 계기로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하나
나탈리이
명다은
아시원
줄리안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행복해요. 아직 노래를 아주 잘 부르진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거라고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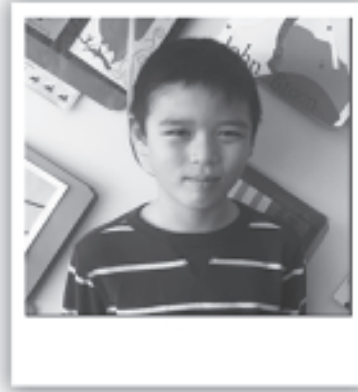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걸 영원
 되었어요 나는 동물들을 그려는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동물들을 사랑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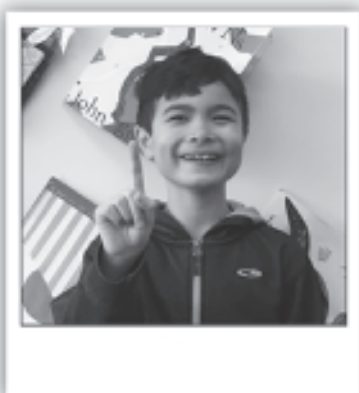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내목소리가 너무 예뻐
 대요. 그래서 어릴때 부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나는 노래부를때가 가장 행복
 해요.



저는 미래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재미있는 게임도 만들고
컴퓨터랑 로봇을 아누보다
먼저 조정할수있는 사람이기요.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싶다. 벌써
그림을 잘해요. 그림 멋있어요.
그림이 어려워요. 연습해야해요.





종달새반

교사 이재선

종달새반 교사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린딸과 함께 8년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문법은 한국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심카 일씨,

한국의 K-pop 을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고등학생 브랜든..방탄소년단하고 IOI 를 무척 좋아하지요.

어려서 미국에 와서 한국어를 더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미쓰 드류. 지금도 수준급의 한국어를 하십니다.

2학기에는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또 한분이 있지요 마진씨,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 결석 한번 없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열정덕분에 저에게도 수업시간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어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종달새반 학생 모두들, 참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Brandon

한국문화가 미국에서 천천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한국문화가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1년동안 저는 인터넷으로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K-pop 음악 정말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9학년때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K-pop을 좋아해서 한국 음악 댄스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보고나서 K-pop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나는 엑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춤이 너무 멋있으니까요

지금은 방탄소년단, 아이오아이를 좋아해요. 계속 한국어를 공부해서 K-pop 가사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요.



장동 고향 아빠 사랑

미숙 Drews

내가 일곱살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 엄마하고 여동생 둘까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사 갈수 있었던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제일먼저 만났던 일이 있었다.

친구들하고 학교로 걸어갈때 정말 이상한것을 보았다. 눈발 멀리서 큰 트럭이 사고가 나서 눈밭으로 굴러떨어져 있는것을 보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가 다쳤는지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갔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의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고 났던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될줄을 그때는 몰랐었다.

일년후에 엄마가 지금의 아빠를 만났다. 엄마는 영어를 잘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었다. 엄마도 아빠도 빙고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하도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되었다. 아빠가 엄마를 처음 보았을때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엄마도 아빠가 참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결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빠는 엄마에게 매력을 느꼈다. 딸이 두명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어린 딸들을 미국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두 어린 딸을 만난후 엄마와 결혼해야겠다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느날 아빠의 팔을 보았는데 팔에는 화상흉터가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어떻게 다치셨냐고 물었다. 미군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트럭이 길에서 구르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다. 그게 언제 일어났냐고 물어보니 작년에 내가 봤던 그 사고가 났던 날이 었다. 내가 봤던 사고를 당하셨던 그 사람이 나의 아빠가 되셨다.

올해는 내가 한국에서 온지 50년이 되는 해다.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것 같다. 나쁜일이 있어도 사랑을 주고 나누면 그 사랑이 배로 늘어나 언젠가는 좋은일이 꼭 생길것이다.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신다.

한국여행

심카일

지난 여름 방학때 제 가족이 한국에 다시 갔었어요. 제 가족이 네 명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우리 딸 그리고 나 있었어요. 십일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었어요. 한국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갔을때 아무도 영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나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영어를 잘 해요. 한국어로 말해 보면 영어로 대답했어요. 여행은 더 쉬워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행했을때 음식이에요.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음식 버킷 리스트 만들었어요.전주에 유명한 비빔밥 집에 갔었어요. 이 식당은 반찬을 아주 많이 제공했어요. 비빔밥을 먹고 나서 제 남편하고 사촌 두 명같이 막걸리 집에 갔었어요.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안주가 너무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흑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먹었어요. 흑돼지 오겹살하고 김치하고 소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요. 흑돼지 너무 너무 맛있어요. 속초하고 부산에서 또 해산물을 잘 먹었어요. 산낙지 먹어봤지만 나는 결코 다시 먹지 않을 거예요. 부산에서 호떡 먹어 봤어요. 어디거나 길거리 음식도 잘 먹었어요. 다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빙수예요. 설빙 카페 진짜 대박. 나는 팔빙수 싫어요. 그렇지만 블루베리 치즈설빙 최고예요.

여행 가는데 구경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박물관에 가기를 좋아하지만 제 가족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답사를 했어요. 아름다운 경치, 재미있는 건물 하고 부산한 시장들 많이 봤어요. 제 남편과 저는 통영 좋아해요. 작고 매력적인 (쾌적한) 도시예요. 거북산과 동피랑길 그림과 “빠담빠담” 영상로케이션이 재미있었어요. 반면에 우리 딸 활기찬 도시 좋아해요. 홍대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버스 크스와 무리 즐거워요.

아름다운 시골에서 재미있는 도시까지 대한민국 아주 멋진 곳이에요.





음악

세종학교 어린 친구들을 만난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수업을 준비 할때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이었는데 세종학교 첫날 준비된 노래와 춤을 열심히 따라하며 즐거워 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힘이 나고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똥망똥망 빛나는 눈으로 열심히 동영상을 바라보는 귀여운 토끼반 친구들,

노래도 춤도 가장 열심히 예쁘게 따라 해주는 든든한 나비반 친구들,

때로는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해 춤과 노래를 하는 시크한 개나리반 친구들,

매 수업마다 가장 열정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재주가 많은 매화반, 난초반 친구들,

세종학교의 걸그룹을 꿈꾸는 기 많고 열정으로 똥똥 똥똥 무궁화, 장미반 친구들,

12월에 있었던 동요 대회 부르기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지금은 예술제 무대를 위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따라와주는 우리 친구들을 볼때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또한 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잊어 버리지 않게 혹은 가르쳐 주기 위해 세종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배움을 원하는 아이들과 그 배움을 채워주시는 멋진 선생님들

그 배움을 지원 해주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1월에 어머니와 함께 무용학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TV에서 ‘장녹수’ 라는 사극드라마가 방영 되었는데 주인공이 춤 추는 장면을 보고 무용을 배우겠다고 유치원에 안 가고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세종학교 교사 제의를 받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할 때, 저의 첫 시작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학원에서 배웠던 새로운 동작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자한 미소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춤추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와서 함께 수업을 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럽고 몇 십 개의 다양한 보석들이 반짝거리며 빛이 납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매주 만나는 기쁨이 있기에 수업을 하고 나면 힘을 얻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미안함도 있습니다.

세종학교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학교입니다. 미국이라는 땅에서 한국적 정체성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 해는 전통춤의 대표작인 부채춤과 꼭두각시 수업을 하였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한 팀을 이룬 전체 학생들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눈에 띄는 것보다는 서로 배려하며 같이 호흡을 맞춰야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춤 동작보다는 메스 게임 형식의 군무 작품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적인 발 동작과 돌기, 손 동작, 소도구 사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다음 번에 또 다시 이 친구들과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심화된 춤 동작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예술은 노력과 재능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떠한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의 시간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의 동작이 된다면, 그 후로는 그 동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배우으로써, 그들의 동작이 더 다듬어지도록 매주 잘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땀과 노력이 무대에서 빛나길 소망합니다.







사물놀이

교사 Torey Powers





태권도

교사 Dave Krause



세종 Newsletter Club

회장 최하영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Newsletter Club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하영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세종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행사와 소식들을 알려주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교 신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세종소식”이라는 신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종소식에는 세종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뿐만 아니라 교실 탐방, 선생님 인터뷰, 영화 리뷰, 세종학교 클럽 소개, 한국의 전통 명절과 음식 만들기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세종학교 2교시 수업이 끝난 후 스넥시간에 따로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 기사와 담당 기자가 정해집니다. 현재 세종소식을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하여 모두 10명의 기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안나현, 홍아리, 정여진, 김래아, 문수진, 손유진, 이연우, 공서영, 임재영)

세종 Newsletter Club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세종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나서 지금까지 3년동안 총 6호의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특별하고 멋진 세종소식을 만들고 싶은 달반부터 하늘반까지 세종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사를 자주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 내가 쓴 기사를 직접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람도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클럽

회장 안나현

저희 세종학교 친구클럽은 입양아와 도움이 필요한 세종학교 학생들을 위한 클럽입니다.

매주 금요일 마다 Bloomfield Hills Public Library에서 선생님들이 따로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친구클럽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8학년부터 12학년 세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 클럽의 목표는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친근감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세종학교 숙제, 다른 교과서와 책들을 이용해 학생들이 한글을 친숙하게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친구클럽은 한글 공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저는 이 클럽에 5년 동안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배울지 생각하며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향상된 실력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혼자 힘으로 끝내거나 책을 혼자 읽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세종학교 친구클럽 회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도와주며 활기차게 가르치겠습니다.

K-Rise

회장 김동욱

K-Rise 은 한국문화 Club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한류를 우리만의 방법으로 배우고 즐기며 봉사도



하는 클럽입니다. K-pop dance, 노래, 등등 Performance 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학교 의 날, 대학 진학 세미나, 그리고 세종학교 예술제 등은, 한국의 문화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Middle School, High school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토요일에 수업이 끝나는 1:30부터 2:30까지 만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Rise is a club that celebrates Korean culture and focuses on the spreading of the modern Korean wave. In K-rise, we want to display Korean culture through performances such as dancing, doing song covers, acting, and more. It's a fun way for us to interact and learn more about Korea. Last year, we performed at the Day of Korean School at UofM, College Seminar, and Saejong's Yaesuljae to spread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n an exciting and accessible way.

Anyone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can join and we meet on Saturdays from 1:30 to 2:30pm.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year! Thank you!



Chingu Club

What is Chingu Club?

It is a club for adopted Koreans, 2nd-3rd generations of Koreans, or anyone who has an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and/or culture.

What do we do?

At our weekly tutorial sessions, you can get help on your Korean school homework or any other homework. We also have fun monthly get-togethers like apple picking, celebrating the Korean New Year, having picnics, doing arts & crafts, going to the movies, cooking delicious Korean foods... and MORE!!!

Where: Boomfield Township Library Kids Section **When:** Every Friday, 5-6P.M. School Year

Email us at Chinguclub@gmail.com



제21회 세종 동요대회

대상 박연서(매화반)

1등 강유나(개나리반), 박채린(난초반)

2등 김민선(개나리반), 정진아(매화반), 김경월(난초반)

3등 송유빈(개나리반), 김태영(매화반)

장려상

윤수은, 유지나 (난초반)

김지유, 윤채린, 조다니엘 (매화반)

조병현, 조민현, 주예성 (개나리반)

김재인, 이가는 (나비반)

노력상

김서우, 김성윤, 조세라 (나비반)

안현진, 정세이 (개나리반)

김기윤, 김하월 (매화반)

김도희, 최서진 (난초반)



참가상

김기연, 김선우, 김유진, 김이준, 김혜나, 박채이, 손하준, 안소현, 제레미, 최에린, 한에린(토끼반)

강예준, 김지선, 박나연, 박다연, 이연희, 전여진, 한민혁 (나비반)

김나경, 김성월, 김이안, 박지오, 오수지 (개나리반)

제25회 세종 글짓기 대회

세종 대상: 안나현 (하늘반)

4학년 무궁화반: 한준혁(무궁화상), 윤지환(아름다운상), 이상엽(고운상), 김찬영(예쁜상)

5학년 장미반: 배은서(장미상), 전영언(아름다운상), 김세희(고운상), 윤신비(예쁜상)

6학년 해반: 김다영, 정혜린(해상), 김결(고운상), 김주하(예쁜상)

7학년 솔반: 배재현(솔상), 한희원(아름다운상), 정해찬(고운상), 이가희(예쁜상)

8학년 달반: 이연우(달상), 손유진(아름다운상), 윤지윤(고운상), 심진희(예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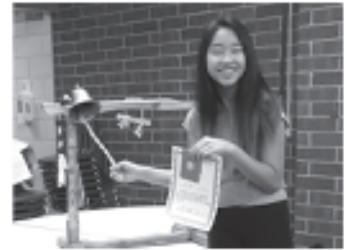
9-10학년 별반: 정상운(별상), 문수진(아름다운상), 조우리(고운상), 정여진(예쁜상)

11-12학년 하늘반: 최하영(하늘상), 홍아리(아름다운상), 이민영(고운상)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제1회 세종 골든벨 우승자

남초반: 박채린 / 무궁화반: 한준혁 / 장미반: 표진선 / 해반: 정혜린
 솔반: 이지민 / 달반: 심진희 / 별반: 정상운 / 하늘반: 안나현



2017년 세종 이야기 대회

대상 윤수은 (남초반)

유치부

- 1등 박연서(매화반)
2등 윤채린(매화반), 조병현(개나리반)
3등 김이안(개나리반), 박재연(개나리반), 조민현(개나리반)

참가상

토끼반: 김유진, 김이준, 김혜나, 손민서, 손하준, 송하윤, 한예린
나비반: 강예준, 강하준, 김성윤, 박나연, 이지호, 한민혁
개나리반: 김성민, 송유빈

초등부

- 1등 윤지환(무궁화반)
2등 김세희(장미반), 배은서(장미반)
3등 김경륜(장미반), 한준혁(무궁화반)

참가상

남초반: 박채린, 최서진
장미반: 전영언

중고등부

- 1등 김결(해반)
2등 김혜진(하늘반), 한수혁(해반)

특별반

특별상 빈빈(신입반)



아침조회



스낵시간



2017년 미시간 협의회 교사연수

우수교사상: 노정환

5년 근속상: 박지영, 최희재

10년 근속상: 윤희란

20년 근속상: 김선미



2015-2016년 종업식 및 세종장터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Sae Jong Society of Detroit